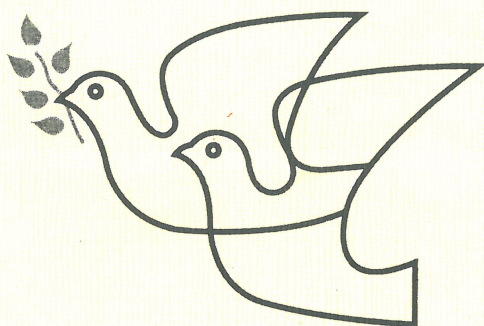


통일세상 준비하는 어린이 인형극과 여성통일강좌



주최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연 : 평화로만드는여성회 '타라'문화예술단

후원 : 행정자치부

2001. 9/23 ~ 10/10 (아니)
(8)

통일세상 준비하는 어린이 인형극과 여성통일강좌



주최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연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타라'문화예술단

후원 : 행정자치부

어린이 통증 인형극

어린이 통일인형극 “땅땅이와 쑹쑹이” 순회 공연일정

회수	일정	참여단체	지역/장소	관람
1	9월23일(일),오후2시30분	부산민주공원 외	부산민주공원	200
2	9월23일(일),오후4시	부산여성회 외	부산민주공원	200
3	9월24일(월),오전10시	경남여성회	남산복지회관1층강당	150
4	9월24일(월),오후2시	울산여성회	동구남목3동 동사무소	200
5	9월24일(월),오후3시30분	울산여성회	동구남목3동 동사무소	200
6	9월25일(화),오전11시	김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회관	200
7	9월26일(수),오전10시30분	안산YWCA	청소년문화의집	150
8	10월 5일(금),오후5시	과천민예총	과천 갈현동사무소3층	70
9	10월 5일(금),오후7시-8시	과천부림문화의집	과천부림문화의집3층	50
10	10월 6일(토),오후2시	두레방선교센터	의정부 활랜루야교회	50
11	10월 7일(일),오후2시30분	교회연합회	전남 순창	200
12	10월 9일(화),오전10시30분	수원여성회	경기문화재단	250
13	10월 9일(화),오전11시30분	수원여성회	경기문화재단	80
14	10월10일(수),오전10시30분	원주여성민우회	원주시 여성회관	200
15	10월10일(수),오전11시30분	원주여성민우회	원주시 여성회관	200
	합 계 (명)			2,400

어린이 통일인형극 대본

땅땅이와 쑹쑹이



등장인물

변사 할머니, 땅땅이, 킁킁이, 쑹쑹이, 썩썩이, 호랑이뽕뽕이, 여우, 선녀

프롤로그



(부채를 든 변사 할머니가 등장한다.)

(갑자기 ‘뽕’하고 방귀한대를 시원하게 뀌는 할머니)

할머니: 호호호 ... (부채로 방귀를 날려버리며) 아이구 시원해라.

애들아, 내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해줄까.

(할머니 이야기를 시작하면 옆에 토끼 두 마리가 등장, 말없이 동작으로만 연기를 재현한다.)

할머니: 옛날에 집토끼 땅땅이 한마리가 살고 있었단다. 하루는 땅땅이가 토끼장에서 늘어지게 잠을 잤는데 ‘쿵-’하고 대포터지는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떴어.

이때 땅땅이 친구 콩콩이가 두귀를 쫓긋 세우고 콩 콩 거리며 달려와서는 “땅땅아, 독가스야. 빨리 도망가자.”하지 않겠어.

“또, 시작이야?” 자다가 놀란 땅땅이는 “결음아 날살려라 - ”

도망치기 시작했단다.

(할머니 퇴장한 뒤 도망가는 땅땅이와 콩콩이)

1장. 방귀 피해 삼만리

(‘쿵, 쿵-’연거푸 대포 터지는 듯한 소리 들리면 음악 깔리고 지독한 방귀 냄새로 뒤덮이는 마을의 모습이 보인다.)

(도망가는 동물들 사이로 땅땅이와 쿵쿵이도 보인다.)

쿵쿵이: 아구, 방귀 냄새...

(어지러워 비틀거린다.)

땅땅이: 쿵쿵아, 눈감고 코를 꼭 막어.

(속닥거리는 동물들)

여우: 강건너 사자나라가 쳐들어 온대.

(열심히 도망가는 동물들 사이로 산꼭대기에서 독가스 방귀를 내뿜는 뽕뽕이들이 힘찬 구호소리와 함께 내려 오며 노래를 한다.)

뽕뽕이 노래 “사자가 쳐들어 온다”

뽕뽕이 랩- 사자들이 몰려온다 몰려온다 몰려온다

사 -자가 쳐들어 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뽕 - 뽕 - 뽕 뽕 !

강건너 사자들이 호시탐탐 쳐들어 온다

설마 설마 아니 겠지

마음 놓고 놀 수 있나

뽕 - 뽕 - 뽕 뽕 !

어서 어서 도망가자

모두 모두 도망가자

뽕 - 뽕 - 뽕 뽕 !

땅땅이: 으 - 독하다. 독해.

(방귀 냄새에 도망치던 땅땅이와 뽕뽕이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1 - 1장. 꿈꾸는 땅땅이

(부드러운 음악 흐르면 할머니 등장한다.)



할머니:(부채를 흔들며) 정신을 잃은 땅땅이는 꿈나라로 갔단다.

(선녀와 함께 등장하는 땅땅이)

땅땅이는 달콤한 방귀나라로 흘러 왔어

땅땅이:(황홀해 하며) 으-음 달콤한 냄새.

할머니:이때 단방구 선녀가 나타나 땅땅이한테 같이 춤을 추자고 말했다.

단방구 선녀한테 반한 땅땅이는 선녀와 달콤한 평화의 춤을 추었어.

(평화의 노래 깔리는 가운데 정신 없이 선녀와 춤을 추는 땅땅이.)

평화의 노래 - 단방귀나라
어디에 있을까 단방귀 나라
독가스 방구 없는 단방귀 나라
싱그런 바람 달콤한 방구
어디에 있을까 단방귀 나라
마음껏 웃어요 즐겁게 숨쉬요
평화롭고 아름다운 단방귀 나라

(노래 끝나면 선녀 춤추다 슬며시 사라지고 콩콩이 들어와 땅땅이

를 깨운다)

(꿈에서 깨어난 땅땅이 단방귀 선녀를 찾아 이리 저리 헤맨다.)

땅땅이: 단방귀 선녀님, 단방귀 선녀님

콩콩이: 단방귀 선녀?

(고개를 가우뚱하며 지켜보는 콩콩이)

땅땅이:(힘을 팍주며)아, 방구가 안나와. 넌 나오니?

콩콩이:아니, 독가스 방구를 많이 맡았더니 방구 췌는 게 너무 무서워.

땅땅이: 아 - 단방귀 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

콩콩이:난 단방귀 냄새도 잊어 버렸어. 방구를 못 꺾니까 얼굴이 어떻게 뜨는거 있지.

땅땅이:내가 꿈이야기 해줄까?

할머니: 땅땅이는 꿈 이야기를 하며 단방귀 나라를 찾아 갈 것을 결심했어. 콩콩이는 땅땅이를 따라 길을 떠났단다.

(땅땅이와 콩콩이 '단방귀 나라' 노래를 부르며 길을 간다.)

“단방귀 나라”

어디에 있을까 단방귀 나라
독가스 방구 없는 단방귀 나라
싱그런 바람 달콤한 방구
어디에 있을까 단방귀 나라
마음껏 웃어요 즐겁게 숨쉬요
평화롭고 아름다운 단방귀 나라

2장. 단방귀나라를 찾아

(신비하고 경쾌한 음악 흐르면 여행을 떠나는 땅땅이와 콩콩이의 모습이 그림자극으로 펼쳐진다.)

(지독한 방귀냄새를 피해 조용한 산속에 도착한 땡땡이와 콩콩이.)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소리)

콩콩이: 와 - 새소리다.

땡땡이: 여기는 독가스 방구내가 안나.

콩콩이: 응, 우리 숨 좀 크게 쉬어 보자. 하나, 둘 하나, 둘...

(크게 숨쉬기 체조를 하는 땡땡이와 콩콩이.장난치는 땡땡이)

잘 따라해 봐.

(이때 썩썩 날아 다니는 산토끼 쑤쑤이와 짹짹이가 나타난다.)

(땡땡이네를 보고 오히려 경계를 일으키며 숨는 쑤쑤이네. 다시 고개를 빼꼼히 내민다.)

땡땡이: 어 - 재네들 봐.

(서로가 낯선 모습에 빙글 빙글 돌며 경계를 하는 땡땡이와 쑤쑤이네.)

(음악 깔리면 서로 탐색작전을 펼친다.)

땡땡이: 장난 아니다. 완전 톱다리들이다.

(땡땡이네에게 돌보기를 갖고와 관찰하는 짹짹이. 쑤쑤이에게 뭔가 보고한다.)

짹짹이:(쑤쑤이에게)쑤쑤! 모양은 약간 이상한데 틀림없는 토끼라우.

쑤쑤이:(짹짹이에게)완전 솟다리들 아니간. 토끼들이 틀림없네? 혹시 늑대가 변장한거 아니간?



(자기들끼리 계속 쑹덕대며 경계하는 산토끼들)
(망설이다 먼저 다가가 말 붙이는 땡땡이)

땡땡이: 안녕.

쑤쑤이: 반갑다우

(땡땡이 뒤에 가



서 숨는 쿵쿵이)

땅땅이: 쿵쿵아, 너도 인사해

쿵쿵이:(경계하며) 안녕 -.

(바위 틈에 숨어 경계를 늦추지 않는 쑹쑹이네)

쑹쑹이: 난 산토끼 쑹쑹이. 썩

썩이 너두 날래 인사하라우.

썩썩이: 내래 산토끼 썩썩이.

쑹쑹이: 너이래 토끼들이 분명

하네?

땅땅이: 맞아. 난 집토끼 땅땅이. 근데 너네들 왜 그렇게 놀래니?

쑹쑹이: 우리래 산속에서 무서운 짐승을 많이 만나서 기래.

쿵쿵이: 산토끼들이 겁이 더 많나보다.

썩썩이: (썩썩대며) 니들도 산속에 살아보라우.

쿵쿵이: 근데 너네는 우리하고 똑 같이 생겼는데 앞다리가 훨씬 길구나.

땅땅이: 산토끼들이라 그런가 봐

썩썩이: 토끼는 고저 우리 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맛있지. 보라우.

(썩썩 날아 다니는 산토끼들)

땅땅이: 니네들 우리도 한번 볼래.

쿵쿵이: 좋았어.

(열심히 뛰어 오르는 집토끼들, 그러다 미끄러지는 쿵쿵이)

쑹쑹이: (깔깔대며) 너이래 집안에서만 탕탕 놀아가지고 앞다리가 쪼그라 든기야.

쿵쿵이: 흥, 니네들 머리 모양은 완전히 춘달 같다.

땅땅이: 맞아. 완전 엽기다, 엽기.





쑹쑹이: 너이래 이런 거 할줄 아나?

(줄위에서 자전거 타기 흥내내는 쑹쑹이)

땅땅이: 그럼 우리거도 볼래?

(엽기토끼의 입김 버전 흥내)

쑹쑹이: 뭣 -

쑹쑹이:기런데 느이들은 어디서 오는 길이간.

땅땅이:우리는 요 앞강에 집토끼 마을에서 오는 길이야.

니네는 여기 사니?

쑹쑹이:기렇다우. 우리래 태어나서 쭈욱 여기서 살았다우.

콩콩이:니넨 좋겠다. 이렇게 조용한 숲에서 사니까.

땅땅이:그래. 우리마을은 독가스 때문에 피로워.

쑹,썩:독가스?

(방귀 소리에 놀라 자빠지는 토끼들)

(이때 '뿌웅'소리와 함께 이들 앞에 나타나는 뽕뽕이 호랑이.손에 쏜 세지를 들고 있다.)

(음악은 무시무시하지만 호랑이는 쏜세지를 먹으며 바보스럽게 등장한다.)

호랑이:(쏘세지를 먹으며)아 맛있다.(토끼들을 보며)애들아, 뭐하니.

(주섬 주섬 일어나는 토끼들)

땅땅이: 아저씨 누구세요.

호랑이: 난 강건너 사자나라와
맞서 싸우는 호랑이 뽕뽕이란
다.

콩콩이: 와 - 아저씨가 그 유
명한 뽕뽕이 아저씨예요.

땅땅이: 아저씨 지난번 마을에
쳐들어 온 사자들은 모두 물리
치셨나요?

호랑이: 그럼. 내가 이 독가스 방구로 한방에 날려 보냈지.

(좋아하는 땅,콩이)

콩콩이: 맞아, 이 아저씨 독가스 방귀가 얼마나 센데. 사자들이 다 도망간
다구.

(호랑이를 의심하는 산토끼들)

쑤쑤이: 이상하다. 우리는 호랑이가 집토끼 동네에 쳐들어 온다고 들었는
데...

(썩썩이 이번에도 돋보기를 호랑이에게 대고 관찰해보며)

썩썩이: 아저씨래 집토끼 동네를 지켜주는 아저씨야요?

호랑이: 그럼.

썩썩이:(안심하며) 진짜구나. 문지기 아저씨, 문지기 아저씨.

쑤쑤이: (가우뚱한다) 기래?

호랑이:(궁둥이를 가리키며) 다 이 독가스 방구 덕분이지.

노래 "사자가 쳐들어 온다"를 부르는 호랑이

뽕뽕이 램- 사자들이 물려온다 물려온다 물려온다

사 -자가 쳐들어 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뽕 - 뽕 - 뽕 뽕 !
 강건너 사자들이 호시탐탐 쳐들어 온다
 설마 설마 아니 겠지
 마음 놓고 놀 수 있나
 뽕 - 뽕 - 뽕 뽕 !
 어서 어서 도망가자
 모두 모두 도망가자
 뽕 - 뽕 - 뽕 뽕 !

(방구 냄새에 놀라 기절하는 토끼들)

토끼들: 아저씨 그만 - !

호랑이: 그러니까 너희들도 언제나 조심해야 돼.

땅땅이: 씹씹이 니네들은 좋겠다. 사자들이 안 쳐들어 와서.

호랑이: 그건 모르지. 언제 사자들이 이곳까지 쳐들어 올지 몰라.

씹,쌩이: 정말이야요?

콩콩이: (한숨을 쉬며) 언제나 독가스 안맡고 살 수 있을까?

단방구내 좀 말고 살았으면 좋겠어.

땅땅이: 아저씨, 콩콩이와 전 단방귀 나라를 찾아가는 길이거든요.

꿈속에서 단방귀 나라에 갔는데 그 달콤한 냄새를 잊을 수가 없어요.

호랑이: 단방귀 나라? 내가 알지.

땅,콩이: 정말이야요?

호랑이: 그럴. 내가 원래 단방귀 나라에 살다가 너희 동네를 지켜주러 내려왔단다.

땅땅이: 아저씨, 우리들 그 곳에 데려다 주세요.





콩콩이: 뽕뽕아, 썩썩아
니네들은 여기 안 답답
하니?

뽕뽕이: 우리도 이 조용
한 산속이 답답할때가
있다우.

썩썩이: 무서울때도 있다
우.

땅땅이: 니네도 우리랑
같이 단방구 나라에 가

자.

뽕, 썩이: 우리도?

땅땅이: 꿈이었지만 얼마나 좋았다고.

썩썩이: 뽕뽕아, 한번 가보자.

호랑이: 그래. 니네도 내 말을 잘들으면 테려갈게.

콩콩이: 같이 가자. 니네들하고 같이 가면 진짜 재밌겠다.

뽕뽕이: 기릴까? 아저씨 정말 단방귀 나라가 있는 거디요?

호랑이: 그러엄.

(호랑이를 따라 나서는 토끼들)

(‘단방귀 나라’ 노래에 맞춰 호랑이는 땅땅이네와 뽕뽕이네를 부러
먹으며 먹을 길 가져오게 한다.)

“단방귀 나라”

어디에 있을까 단방귀 나라

독가스 방구 없는 단방귀 나라

싱그런 바람 달콤한 방구

어디에 있을까 단방귀 나라

마음껏 웃어요 즐겁게 숨셔요

평화롭고 아름다운 단방귀 나라

(가도 가도 달콤한 방귀
나라는 보이지 않고 자꾸 먹어
지독한 방귀냄새만 풍기는 호랑
이)

(먹이를 모아 오다가 점
점 지치는 토끼들)

호랑이: 아구 배 불러라.

(호랑이 앞에서 지쳐 쓰
러지는 토끼들.)

땅땅이: 아휴 힘들어.

(주저 앉다 자기도 모르게 방귀를 뽕 뀌는 땅땅이)

콩콩이:(땅땅이를 쿡 찌르며)땅땅아 -.

(생피해 하는 땅땅이)

색색이: (코를 킁킁대며)오우, 단냄새.

뽕뽕이: (놀라며) 응?

콩콩이: 이게 단냄새야?

색색이: 땅땅이 방구 단방군데.

땅땅이는 방구쟁이.

(함께 놀리는 솜솜이)

콩콩이: 너네들 정말 놀릴꺼야?

(토끼들 떠드는 사이 슬쩍 사라지는 호랑이)

땅땅이: 우린 단방구를 못핀지 오랜 걸.

(뒤에서 토끼들을 불안하게 쳐다보는 뽕뽕이)

콩콩이: 근데 뽕뽕이 아저씨가 어디갔지?

(둘러보다)뽕뽕이 아저씨 나쁘다. 우린 배고파 죽겠는데 자기만 먹
고.

색색이: 배고파.배고파.

솜솜이: 뽕뽕이 아저씨래 아무래도 수상하다우.



썩썩이: 기렇다, 기렇다.

땅땅이: 뭐가 수상해.

썩썩이: 우리를 계속 끌고 다니기만 하는 게 단방귀 나라를 모르는 거 아니간?

땅땅이: 그 아저씨가 방구 잘 뛰는 거 봤지? 방구 나라에서 왔으니까 그렇게 잘뛰지

썩썩이: 뽕뽕이 아저씨가 단방구를 편 건 아니지 않나.

콩콩이: 그래도 단방귀나라에 가려면 힘센 뽕뽕이 아저씨 말을 들어야 돼.

썩썩이: 아니라우. 그 아저씨 못 믿잖어. 단방귀나라는 우리끼리 찾아가는 게 더 빠르잖어.

썩썩이: 빠르잖어.

(서로의 방식이 맞다고 우기는 땅땅이와 썩썩이)

(뒤에서 이를 보고 즐거워 하는 호랑이)

호랑이:(혼잣말) 으호호, 재들을 언제 쫌 잡아 먹을까. 싸워라, 싸워라.

썩썩이: 정 그러면 우리끼리 단방귀 나라를 찾아 가잖어.

썩썩이: 가잖어.

땅땅이: 치, 마음대로 해. 우린 뽕뽕이 아저씨를 찾아 갈꺼야.

(서로 갈라서는 땅땅이네와 썩썩이.)

(부채 할머니 등장)

할머니: 쫌쫌... 이렇게 해서 땅땅이네와 썩썩이네는 갈라서고 말았단다.

3장. 땅땅이와 썩썩이의 함동작전

(호랑이를 찾아 나섰던 땅땅이네는 호랑이의 계략으로 산속에서 온갖



짐승을 만나 고생한다)

(단방귀 나라를 찾아 다니다 역시 호랑이 때문에 고생을 많이하는 뽕
뽕이네)

(호랑이 노래와 토끼들 노래 배경으로 깔린다)

호랑이 노래 - “ 한꺼번에 먹어야 해.”
한꺼번에 먹어야 해
약한 토끼들을 먹어야 해
다투고 싸울때 해치워야 해
마음 합친 토끼들은 힘세지지
한꺼번에 먹어야 해
나눠 졌을 때 먹어야 해

토끼들 노래 - “무서운 숲속”
여기 저기 요기 조기
이곳 저곳 요쪽 조쪽
이리 저리 둘러봐도 적들만 있어
우리를 괴롭히는 나쁜 무리들



호시탐탐 넘보는 나쁜 무리들
이러다가 잡히겠네 !
이러다가 끝장 나겠네 !!

(노래 끝나고 우연히 다시 만나는 토끼들)

(서로 얼싸 앓는 땅땅이네와 씹씹이네)

땅땅이: 씹씹아!

쌉쌉이: 쿵쿵아, 무서워.

씹씹이: 괜히 싸워 가지고... 죽을뻔 했잖아.

땅땅이: 같이 가기로 하고 너네가 먼저 왔잖아.

쿵쿵이: 아이 참, 이러다 또 싸우겠다. 이러지 말고 우리 규칙을 정하자.

쌉쌉이: 규칙?

씹씹이: 안 싸울 수 있는 규칙을 정하자 이기야?

땅땅이: 그래. 우리끼리 같이 짜보자.

쿵쿵이: 땅땅이네와 씹씹이네의 약속

1. 서로 생각이 들려도 자기네가 잘났다고 무시하지 않는다.
2. 싸우지 않기 위해 평화규칙을 맺는다.
3. 어떤 일이 생겨도 안 싸우고 힘을 합쳐 단방귀 나라를 찾아 가기로 약속한다.

2001년 6월 15일, 집토끼 대표 땅땅이 산토끼 대표 씹씹이

(선언문을 읽은 뒤 손도장을 찍는 땅땅이와 씹씹이. 이에 환호하는 토끼들)

토끼들: 와 -

땅,쿵: 앞으로 우리 약속 잘 지키자.

쌉,쌉: 고쵸, 거림.

(무대 한쪽에서 음흉하게



지켜보던 호랑이)

호랑이: 저것들이... 안되겠구만

(무전기로 여우를 부르는 호랑이. 또 하나의 흠계를 꾸민다.)

(‘단방귀 나라’노래를 부르며 사이 좋게 지내는 토끼들)

호랑이:(무전기로) 여우야, 이제 저것들을 잡아 먹을 시간이 얼마 안남았다.

내가 달콤한 방귀냄새를 몰래 만들어 퍼뜨릴 테니 너는 단방귀나라가 코 앞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저것들이 단방귀에 취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할 것! 알겠나?

(호랑이 산뒤로 숨고, 여우들어 온다)

땅땅이: 아, 꿈에서 맡은 냄새.

콩콩이: 땅땅아 혹시 단방귀 나라 냄새니?

땅땅이: 맞아.

여 우: 애들아, 이 냄새 좋지 않니?

쑤쑤이: 아까 땅땅이가 똘 방구랑 똑같지 않나.

여 우: 어머, 애 단방구는 뽕뽕이님만 똘 수 있어.

땅,콩이: 그래.

쑤쑤이: 너희래 바보간. 단방구도 못끼고.

땅땅이: 너넨 뭐어?

썩썩이: 고름. 보라우.

(힘을 주는데 만나 온다.)

쑤쑤이: 기릴 내가...(역시 힘 줘도 만나온다)

썩썩이: 똥 나온다. 똥 나온다.

여우: 저봐, 못끼잖아.



쑤쑤이:(혼잣말로)방구가 마음먹은대로 나오는 기간?



여 우: (관심을 다른데로 돌린다)애들아 단방귀 나라가 얼마 안남았어.

썩썩이: 와~ 단방귀 나라에 왔다.

쑤쑤이: (가우똥 하며) 벌써 단방귀 나라가?

콩콩이: 근데, 여우님. 똥똥이 아저씨 못왔어요?

요?

여우: 똥똥이 아저씨는 단방귀 나라에서 너희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지.

이제 요 앞산만 넘으면 단방귀 나라란다. 하지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단다. 경주를 해서 이기는 토끼 두명만 들어갈 수 있단다.

쑤쑤이: 경주 ?

(토끼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이간질시키는 여우)

땅땅이: 여우님, 경주를 하겠어요.

콩콩이: 그래, 경주하자.

쑤쑤이: 너래 기릴꺼야?

썩썩이: 우리도 정정당당, 정정당당.

(단방귀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에 다시 여우의 퍼임에 넘어가는 토끼들)

(서로 경주 연습을 하는 땅땅이네와 쑤쑤이네)

경쟁의 노래 - “경주를 하자 ”

경주를 하자

정. 정. 당. 당.

싸워야 해 이겨야 해

단방구나라를 차지해야 돼
경주를 해야 해
정... 정... 당... 당...
싸워야 해 이겨야 해

(땅땅이네와 뽕뽕이네
6,15약속의 정신을 깨버리
는 내용의 노래 부르며 다
시 싸우고 서로 미워하게
된다.)

(신나는 여우와 호랑이)
호랑이: '출발'하면 잡아 먹
는다.(하품하며) 에그 너무
먹었나. 아휴 졸려. 출 -



(그사이 무전기로 계속
지령을 내리던 호랑이는 너무 많이 먹은 탓에 꿀아 떨어지고, 호랑이의 지
령이 없자 출발 신호를 뒤로 미루고 해매기 시작하는 여우)
여 우: 뽕뽕이 나오세여 - 오바!

(이를 수상히 여기는 땅땅이네와 뽕뽕이네)
땅땅이: 여우님, 연습 다했어요. 경주할 준비가 됐는데요.
뽕뽕이: 왜 경주를 안하는기야요?
여우: 으-웅, 잠깐... (돌아서서) 호랑이 님, 호랑이 님.

(드르렁 드르렁 코굴고 자는 호랑이)
콩콩이: (엿듣다가)이게 무슨 소리지? 여우님, 뽕뽕이 아저씨가 어딴가요?
토끼들: 뽕뽕이 아저씨가 어디 있나요.
색색이: 어딴가요?
뽕뽕이: (소리나는 쪽을 따라가며)이상하다... 이상하다.
여우: 애들아, (반대를 가리키며) 뽕뽕이 아저씨 저기 단방구 나라에 있어.



쑤쑤이: (쑤쑤이를 따라가며)

아무래도 수상하다우.

썩썩이: 수상하다우.

콩콩이: 뭐가 수상해?

(여우 당황하여 앞을
가로 막는다)

땅땅이: 니네들은 왜 남을
못 믿냐?

쑤쑤이: (여우를 밀친다. 넘어
지는 여우)여우님, 저리 비키

라우요.

뭔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우.

(잘못 넘어져 허리를 다친 여우. 어쩔줄 몰라하며 느리게 쫓아온다.)

여우: 아이구, 허리야.

(소리나는 쪽으로 계속 가는 토끼들)

콩콩이: (할 수 없이 따라가며) 여우님이 뭘 속인다고 그래.

(소리나는 쪽을 따라 온 땅땅이네와 쑤쑤이네)

(단 방귀를 풍기며 끌어 떨어진 호랑이를 발견한다.)

(여러가지 방귀 제조에 필요한 약들이 굴러 다니는 걸 발견한 토끼
들)

땅땅이 : 앓- 이건 방귀 제조 약.

콩콩이 : 단방 귀 약.

썩썩이: (놀라며) 독가스 약

쑤쑤이 : 내래 갑자기 단방귀 냄새가 날때부터 수상했어.

여우: 애들아, 잘못했어. 한번만 용서해 줘.

(토끼들 앞에서 비는 여우)

쑤쑤이: 어찌된 일인지 내래 말해보라우.

여우: 그게...

(열심히 동작을 하는 여우. 이박사 똥짝 같은 버전의 빠른 속도로

설명한다)

토끼들: 뭐야?

(여우한테 물려가는 토끼들. 호랑이 옆으로 도망가는 여우)

여우: (발발떨며)뽕뽕이님, 모든게 탄로 났어요.

토끼들: 예잇!

(그물로 여우와 호랑이를 덮쳐 버린다)

(이때 잠에서 깨어나는 호랑이)

호랑이: (하품을 하다가 놀라며)으잉?

썸썸이: 강 건너 사자나라가 쳐들어 온다는 소문도 거짓이고,

땅땅이: 지독한 독가스 방귀도 단방귀도 모두 너희들이 우리 토끼들을 잡아 먹으려고 꾸민 일이라며...

호랑이: 메야?

토끼들: (화가나서)에잇, 나쁜놈들!

(호랑이와 여우를 그물에 한데 묶어 낭떠러지로 밀어 버리는 토끼들)

(잠이 깨 그물속에서 허우적 대는 호랑이)

호랑이: (독가스 방구를 꺾며) 아구구 뽕뽕이 살려!

(그럼자상으로 호랑이 입에서 나쁜 오물들이 튀어 나온다.)

(토끼들 오물냄새에 괴로워 한다.)

토끼들: 썩-

썸썸이: 우리래 뽕뽕이를 물리쳤구나 야.

땅땅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래.

(신나는 토끼들. 이때 갑자기 단방귀를 끼는 썸썸이)

토끼들: 썸썸이, 너!

썸썸이: 으잉? (창피를 무마시킨다)호호호, 요게 바로 단방구라유.



썩썩이: (신이 나서) 썩썩
이는 방구쟁이. 땡땡이도
방구쟁이...

콩콩이: 그럼, 아까 땡땡
이 방귀도 진짜 단방귀
였나봐.

할머니: (나와서) 맞다! 요
렇게 - ('빠바방-'나팔방
귀를 즐겁게 꺾는 할머
니.)

썩썩이: 여러분도 다같이 힘찬 방귀 '뿌웅-'!

(무대 한쪽 위편에서 나타나는 단방귀 선녀. 땡땡이와 마주치자 손
을 흔든다)

(단방귀 나라 노래 흘러 나오며 막 내린다.)

"단방귀 나라"

어디에 있을까 단방귀 나라
독가스 방귀 없는 단방귀 나라
싱그런 바람 달콤한 방귀
어디에 있을까 단방귀 나라
마음껏 웃어요 즐겁게 숨서요
평화롭고 아름다운 단방귀 나라



“단방귀 나라”

어디에 있을까 단방귀 나라
독가스 방구 없는 단방귀 나라
싱그런 바람 달콤한 방구
어디에 있을까 단방귀 나라
마음껏 웃어요 즐겁게 숨셔요
평화롭고 아름다운 단방귀 나라



여성 통일강좌

여성통일강좌

회수	일정	내용	주관단체
1	9/11(화) 오전11:00	남북여성교류와 여성의 역할	수원ywca
	강사 : 이문우(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2	9/28(금) 오전11:00	여성과 통일(남북여성교류)	기장여신도회
	강사 : 이김현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3	9/27(목) 오전11:00	남북여성교류의 현황과 과제	기장여신도회
	강사 : 이김현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4	10/5(금) 오후 2:00	반전평화운동	창원여성의전화
	강사 : 이김현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5	10/9(화) 오전 9:30	일상에서의 평화와 통일	구로여성인력센터
	강사 : 김숙임(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통일 주류세력으로서의 여성

이김현숙(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

1. 현 정부의 남북화해정책 추진과 여성

흔히 ‘포용정책’으로 불리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당장 통일을 서두르기 보다는 우선 한반도의 냉전적 대결구도를 화해, 협력구도로 전환해간다는 정책이다. 이 같은 기조는 대북 3원칙, 대북정책의 추진기조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과제 설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우선 대북 3원칙을 보면 1)무력도발의 불용납, 2) 흡수통일 배제, 3)남북간 화해, 협력 추진 등이다. 이 원칙은 추진기조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1)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추진, 2)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 실현, 3)화해협력으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4)남북간 상호이익의 도모, 5) 남북당사자해결 원칙 하에 국제적지지 확보, 6)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북정책의 추진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내건 추진과제는 다섯가지다. 1)남북간 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실천, 2)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3)남북이산가족문제의 우선적 해결, 4)북한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북지원, 5)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6) 한반도 평화환경의 조성 등이 그것들이다. 요컨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화해.협력정책이다. 그리고 이 같은 대북정책은 2000년 6월 13일,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방문과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6.15남북공동선언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화려한(?) 결실을 거두었다. 6.15공동선언으로 이제 남북은 지난 반세기동안 굳어진 극단적 대결체제에서 벗어나 화해와 협력의 새 국면을 맞게 되었고 마침내 평화적 통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여성들은 남북관계의 눈부신 발전을 보면서 현 정부가 통일고 관련해서

는 여성정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를 궁금해 하고 있다. 우선 1998년-2000년 국가의 여성정책 청사진인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보면 정부의 방침이 드러나 있다.

“민족구성원의 절반인 여성은 통일의 배놓을 수 없는 주체이며 남북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통합에 기여하고 통일 이후 여성의 지위확보를 위해서는 통일추진과정에서 여성이 능동적,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함”

정부는 분명히 여성을 통일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으며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은 이런 생각이 청사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들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심포지움과 성명서를 통해 대표단 구성에 여성대표의 30% 참여를 요구했다 (평화여성회, 여연, 등 여성계의 성명서, 2000). 그러나 공식 대표단에는 여성이 한명도 참석치 않았고 24명의 특별수행원 중 단 1명의 여성대표가 참여했을 뿐이다. 이에 반해 북한 측에서는 공식 대표단의 협상테이블에 여원구 최고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 조직안팎에는 많은 통일관련기구와 위원회들이 있다. 그러나 이 기구들 속에서도 여성의 참여는 매우 저조하다.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통일관련 위원회 등에 여성의 참여는 여성계의 요구인 30% 할당에 못미치고 있다. 통일 고문회의 20%, 정책자문회의 8.3%, 통일교육심의위원회(12%)(1999여성백서,) 통일정책평가회의 0%, 민주평통자문회의 14.9%(여성특위, 통일의식조사, 262)가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이밖에도 여성은 남북간 합의서나 관련 법률에서도 불가시적이다. 다음의 예들이 그것들이다.

1)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16조:에는 ‘여성’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

“남과 북은 과학, 기술, 교육, 문학,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8조까지는 남북 교류,협력추진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이사, 그리고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성원 전원이 정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회가 교류,협력 전반에 대한 핵심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의견이 수렴되는 절차가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3)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남북협력기금법(1990년 8월 제정)에 의해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8조(기금의 용도) 2항은 ‘문화, 예술, 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5항은 ‘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 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여성은 5항의 기타에 속할 것이지만 아직 이 기금에의 접근은 용이하지가 않다.

4)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부분별 부속합의서 이행 및 정부당국간 교류를 위한 공식기구로 남북화해공동위원회(7명), 남북군사공동위원회(7명),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산하 남북경제교류협력위원회(9명)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9명)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각 위원회는 각 부처의 실국장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이 참여한 곳은 남북사회문화교류공동위원회 뿐으로 이곳에도 1998년부터 여성특위 국장급 여성공무원 1명이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5)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는 2000년들어 일반 예산과는 별도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중 통일관련 지원사업에 3000만원(총 6억5천200만원)을

시범적으로 책정했을 뿐이다.

2. 여성이 통일 주류세력이 되고자 하는 이유

여성들은 1995년 북경여성대회 이후 '여성의 주류화'를 여성운동의 주요 담론으로 채택해 왔다. 국가에 대한 여성들의 영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채택된 화두다. 오늘 '통일 주류세력으로서의 여성'이란 주제도 이런 맥락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왜 여성은 통일과정에 주류세력이 되고자 하는가? 이 질문은 '왜 여성들은 통일운동에 나서려 하는가? 또는 민족이 하나되는 일이 여성의 삶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들과 맞닿아 있다. 얼핏 통일문제는 여성문제와는 별개인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여성문제와 통일문제의 접점이 얼른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여성이 통일운동에 나서야 하는 이유, 나가서 통일 주류세력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그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

첫째, 여성이 통일운동에 나서는 이유는 분단 폐해에 대한 절절한 인식과 경험 때문이다. 우선적인 피해는 분단이테올로기로 인한 심각한 인권침해다. 80년대까지 온땅을 물들였던 빨갱이 콤플렉스와 국가안보법의 전횡으로 여성운동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진보적 사회운동과 그 종사자들은 탄압대상이 되고 이념적 피해자가 되었다. 탄압대상이된 개인들은 고문피해자가 되고 여성은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기 일쑤였다. 또한 분단상황은 군대권력을 강화하고 군사주의 문화를 보편화시키면서 '타자에 대한 지배'를 자연스런 사회원리로 만들으로써 가부장제 사회 지속에 기여해왔다. 뿐만 아니라 분단은 '폭력'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독재권력을 낳고 이런 문맥 속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은폐, 조장되어 왔다. 분단은 외국군 주둔을 부르고 이것은 한편으로 가난한 여성을 매춘여성으로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 여성들의 복지예산을 갉아먹는 막대한 군비지출을 야기한다.

분단은 이 땅을 지뢰밭과 군사훈련장으로 만들어 나물채취에 나선 가난한 여성들과 민간인들을 불구자로 만들뿐 아니라 매항리와 같이 임산모들과 어린이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고 자연에 대한 강간도 일삼고 있다(이현숙, 1999). 일생을 전쟁의 공포에 사로잡혀 사는 남북한 주민의 어두운 삶이나, 남편을 잃거나 남편과 헤어져 일생을 시부모봉양과 가족부양에 허리가 휘도록 고통스럽게 살아온 이산가족 여성들의 명예 또한 잊을 수 없는 분단의 비극이다. 험한 미국에게 눌러, 기지촌여성이 억울하게 살해를 당하고 매항리의 임산모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도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처지가 분단 국민의 처지다. 이와 같이 분단은 사회전반에 인권, 정의, 민주주의, 인간안보, 생태계보전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후퇴시킴으로써 여성발전을 비롯해 사회전반의 발전을 가둬놓고 있다. 이런 비극적 상황에 대한 인식과 경험 때문에 여성들은 분단해소를 위한 통일운동에 나선다.

둘째는 통일이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미 통일을 이룬 다른 세 나라의 예가 잘 입증해 주고 있다. 베트남은 1975년 무력통일을 성취했고 예멘은 1990년 5월 합의통일을, 독일은 1990년 10월 흡수통일을 성취했다. 그러나 세 모델 모두 통일 후 심각한 사회불안을 야기했다. 불완전한 통합정책이 초래한 결과였다. 무력통일을 이룬 베트남은 남부지역을 사회주의화하는 통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었고(그러나 통일 후 여성지위는 향상), 당국자간의 합의 통일을 이룬 예멘은 사회통합의 기초인 이슬람 교리를 둘러싸고 심각한 남북 주민간 갈등을 겪었다(통일원,1995).

남북은 일부다처제, 여성의 사회활동문제, 음주어용 여부 등 사사건건 대립하였으며 주택문제, 식수 및 전력 부족 등으로 큰 불편이 야기되면서 주민간 불신과 갈등이 첨예화되었다(김국신, 1993). 결국 이런 갈등은 다시 남북예멘 사이의 무력충돌로 이어지고 무력 충돌은 북예멘의 승리로 끝나면서 재통합에 이르게 되었다. 민간의 폭 넓은 참여 없이 당국자간의 담합에 의한 통일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주는 실례다. 흡수통일을 이룬

독일도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흔히 독일이 정치적 통일을 이루는데 1년이 걸렸고 경제통일을 이루는데는 10년이 걸렸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도 얼마나 더 인내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독일인들의 고백이다. 이런 난관은 특히 통일 후 동독여성들이 겪는 엄청난 변화와 혼란 그리고 동서독 주민간의 심각한 갈등이 잘 말해주고 있다. 동독체제에서 평등하게 취업 기회를 누렸던 동독여성들은 흡수통일 후 전체 실업의 67%를 여성이 차지할 정도(김혜은, 1998)로 대규모 실업상황을 맞게 되었고, 이는 동독여성들의 출산기피 및 출산을 저하(90년대 초의 현상)로 이어졌다(여성신문, 2000.8.8). 구 동독 여성들의 경우, 통일 이전 91%의 여성이 직업을 갖고 있거나 직업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전체 취업인구의 49%가 여성이었으며 교육수준에서 성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구 동독 지역 여성들의 경우 실업은 단순한 수입의 감소, 경제적 어려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감의 상실, 심각한 자기 효능감의 상실을 의미한다(김혜은, 1998). 이런 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함께 구 동독여성들은 사회주의 가치관의 몰락에 따른 불안감과 상대적으로 2등 인간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피해의식과 부정적 자아관 형성 등의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다. 거기에도 과거 가족정책에 근거하여 미래를 설계했던 동독지방 여성들에게는 자신과 자녀들의 불투명한 미래가 불안감을 더하게 하고 있다. 이런 역사적 선례들은 통일 후 여성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통일 과정에 여성들의 참여와 의견제시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말해준다. 이런 경험은 또한 통일 후의 사회상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합의없이 그리고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주민간에 상호 신뢰가 쌓임 없이 통일이 진행될 경우 통일은 많은 혼란과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런 절실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북화해 및 통일협상은 남북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남북화해협상 진행 팀에 여성의 존재는 보이

지 않는다. 남북화해협상에서의 여성의 부재는 통일문제와 같은 거시적 영역은 남성들의 영역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사회적 관행을 반영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방, 외교, 통일 분야는 남성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국제단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 분야가 여성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이 생기면서(Betty A.Reardon, 1993) 세계여성들은 여성들의 참여를 요구해 왔다.

지난 6월에 열린 베이징 +5 유엔세계여성총회에서 중요하게 부각된 의제의 하나가 '여성의 평화협상 참여'였다. 분쟁과 갈등을 증대하는 협상 테이블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전쟁을 일으킨 남성들도 참여하는데 평화를 위해 일해온 여성들이 평화협상테이블에 참석 못할 이유가 없다'(노엘린 헤이저, UN여성개발기금이사, 2000)는 것이 여성들의 주장이었다. 여성들도 평화협상에 참여해 여성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평화능력을 발휘하겠다는 것이 여성들의 요구다. 한국여성들의 통일참여 요구도 같은 맥락에 서 있다. 민족구성원의 절반인 여성은 통일의 뼈 놓을 수 없는 주체이며 남북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통합에 기여하고 통일 이후 여성의 지위확보를 위해서는 통일추진과정에서 여성이 능동적,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들은 남북협상 대표단에 여성 대표 30%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유엔은 직원의 50%를 여성으로 채운다는 목표를 진행시키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국회의원선거때 비례대표 여성 30% 할당제를 요구한 바 있다. 할당제 요구는 기존의 남성 영역에 여성진출기회를 늘림으로써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려는 여성들의 깨어들기 전략이다. (이영자, 2000) 여기서 30%-50% 요구는 여성 상징주의(Tokenism)에 대한 거부 의의를 포함한다. 단순히 여성을 포함시켰다는 명분을 만족시키는 '구색맞추기' 수준을 넘어 여성의 대표성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선으로서(critical mass)의 의미를 갖는다.

셋째는 발전적인 통일사회구현을 위해서는 페미니즘의 대안적 패러다임이 통일정책과 추진과정에 결합되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페미니즘

은 사회적 불평등과 권위주의 구조를 성찰적, 비판적으로 재조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이영자, 1999). 여성들은 통일사회가 보다 발전된 형태여야 하며 통일과정은 사회개혁을 동반하는 것이라야 한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이현숙, 2000). 여성들은 통일사회는 50여년 분단상황에서 형성된 남북한 사회의 군사주의 문화와 우리안의 과시즘이 해체되고 민주적인 참여와 복지가 보장된 사회공동체여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주의적 관점의 결합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들은 한편으로 통일과정에 ‘끼어들기’전략을 펴며 다른 한편으로 ‘들 바꾸기’전략을 동시에 구사해야 한다. 이런 양면 전략은 통일과정과 통일사회의 질적 변혁이라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이미 언급한대로 ‘여성의 주류화’가 여성운동의 주요전략으로 채택되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주류화 전략은 때로 남성세계에 뛰어들어 남성과 같은 지위를 얻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여성해방이며 진보냐는 비판에 맞닥뜨리기도 한다. 이런 비판은 여성의 주류화 전략을 입체화하도록 만든다. 참여를 확대하되 질적 변화를 목표로 하는 이중전략개념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양적 참여확대를 통해 질적 변혁을 추동해내는 전략이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통일주류세력으로서의 여성”의 의미는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안적 가치를 소유한 세력으로서의 여성의 정체성이 강화되고 부각되어야 한다. 이는 분단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심리안에 형성된 과시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인권, 정의, 민주주의, 환경, 인간안보 등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신념, 가부장제를 해체하고 새로운 인간성(new humanity)과 생태학적 사회(ecological society)를 꿈꾸는 페미니즘에 대한 신념을 소유한 세력으로서의 정체성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진 여성들이 남북화해과정과 통일협상에 주류세력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이 통일과정에 참여해야 할 가장 명백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점에서 여성들은 앞으로 어떤 형태의 통일을 이끌어 낼 것인가를 논의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협상은 민과 여성이 참여하는 협상으로 발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북

한 당국자들은 현재 협상통일의 새 지평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당국자간의 협상이 아무리 '자주적'협상이라 해도 실질적으로 민이 참여하지 않는 협상은 전략적으로 이용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3. 통일분야에서 여성들이 개척해온 일

그러면 지금까지 여성들은 통일분야에서 어떤 일을 해온 것일까? 분단과 통일 또는 민족문제에 대해 여성들이 본격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부터다. 80년대 한국사회는 광주민주항쟁을 계기로 분단상황과 민족문제를 새롭게 정착하기 시작했고 종교계(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중심으로)와 사회운동진영에서는 탄압국면 속에서도 분단극복과 통일문제를 집요하게 사회적 과제로 쟁점화해 나가는 시도들을 보였다. 이런 흐름 속에 종교계 여성(여성학자 협의회와 교회여성연합회 등)들과 여성계 한편에서는 통일문제연구(이효재, 박순경교수 등)와 세미나를 열고 대중을 계몽하고 학습해 나가는 시도들을 시작했다(이현숙, 1992).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오면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이 설립되고 진보적 여성단체들이 등장하면서 군축운동 등 보다 실천적인 평화·통일운동을 만들어 갔다. 그러나 가장 직접적으로 남북려성의 상호작용 속에 진행된 통일운동은 90년대 처음 타타났다. 그 대표적인 활동은 학술 토론회를 통한 남북여성교류와 북한 여성에 대한 인도적 지원 두 형태였다.

1) 남북여성교류

지금까지 성사된 주목할만한 남북여성교류는 두 경우다. 하나는 1991-1993년까지 4회에 걸쳐 열렸던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토론회이고 둘째는 1993-1998년 사이에 4회 열린 "일본군 위안부"관련 모임이었다. 그외에 1999년 우리민족서로돕기 여성위원회 여성 4인이 1회 평양

을 방문한 일이 있으며 그 후속모임(한민족여성한마당)을 준비하고 있다.

가.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는 남한, 북한 그리고 일본 3국간 여성 지도자 모임으로 일본 여성들의 증재로 성사된 모임이었다. 제1차 모임(1991. 5.28-6.4)은 동경에서, 제2차 모임(1991. 11.25-29)은 서울에서, 제3차 모임(1992. 9.1-9.6)은 평양에서, 제4차 모임(1993. 4.24-30)은 동경에서 각각 열렸다. 특히 서울토론회와 평양토론회는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여성지도자들이 휴전선을 넘어 각각 서울(북한여성 15명이 방문)과 평양(남한여성 30명) 땅을 밟게 됨으로써 전 민족의 관심과 주목을 끌었다.

이 토론회는 1) 분단이후 최초로 민간여성들의 손으로 남북여성들간의 교류를 트고, 2)민족문제와 아시아의 평화문제, 여성문제에 대해 남북일 여성들 사이에 공감대와 연대의식이 형성되었으며, 3)정신대문제를 남북여성의 공동과제로 발굴, 채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4)토론회를 상설기구로 만들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가장 평가받을 만한 남북여성모임이었다. 이렇게 진행된 토론회는 정치적 남북관계가 다시 얼어붙으면서 1993년 제5차 서울모임(주제: 민족의 화해와 여성)을 앞두고 중단되고 말았다. 이후 평양모임에서 상설기구를 두기로 한 합의에 따라 남북한과 일본에는 각각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토론회 남측실행위원회, 북측실행위원회, 일본측 실행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제5차 모임이 오래 중단됨에 따라 1997년 이후 이 세 실행위원회는 각각 다른 이름으로 확대, 발전했다. 남측실행위는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로, 북측은 <아시아여성과 함께하는 조선여성협회>로, 일본측은 <조선여성과 연대하는 여성협의회>로 바뀌게 되었다. 이후 남북여성교류는 2001년 6.15공동선언대토론회를 통해 재개되었다.

남북정상회담이후 처음 남북공동행사로 열린 금강산대론회(3박4일)에는 남북민간대표 8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중 남측에서는 민화협 여성위원회

와 통일연대 여성위원회 대표를 비롯한 여성대표 83명이 참석, 3박 4일간 간담회와 산행 등의 공동행사를 가졌다. 같은 해 8.15에는 남측 민간대표 310명(여성 57명)중 민화협 여성위원회와 통일연대 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22명의 여성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6박 7일간 평양과 백두산, 묘향산을 참관하고 여성통일토론회도 가졌다. 남북여성들은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결의하고 2002년에 남북여성통일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합의하고 돌아왔다.

나. '일본군 위안부' 관련 모임도 1993년 이후 4회에 걸쳐 성사되었다. 평양모임에서 '일본군 위안부'문제가 남북여성의 공동과제로 설정된 이후 그 첫모임은 93년 10월에 동경에서 열린 "제2차 종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였다. 연례적으로 모이는 이 모임에 남북한 대표가 처음 함께 참석해 공동 대처방안을 토론했다. 둘째 모임은 1993년 11월에 평양에서 열린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에 관한 평양여성토론회"였다. 이 모임에 남측에서 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 공동대표 2인이 참여해 심층적으로 정신대문제를 논의했다. 셋째 모임은 1995년 7월 일본에서 열린 종군위안부관련 국제세미나에 남북이 함께 참여한 모임이었으며 넷째 모임은 1998년 북한의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의 제안으로 북경에서 열린 모임이었다. 이때는 "일본군위안부문제와 여성의 인권에 관한 남.북.일본여성의 3자회담"으로 열렸는데 이 모임에는 북측에서 위안부 할머니 등 8명이 참석하고, 남측에서는 <정대협>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대표 등 6명이, 그리고 일본측 대표 7명이 참석했다.(김윤옥, 1998)

이상의 꾸준한 남북모임은 남북여성간에 정신대문제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고 공동대응의 수위를 높여갈 수 있는 계기를 열어주었다. 98년의 모임에서는 남북일 여성 공동으로 일본정부에 보내는 항의문을 채택하고 유엔 인권위원회에 보내는 서한도 채택했다. 일본정부에 대한 항의내용으로는 1)국제법위반인정, 사죄, 배상요구, 2)시모노세키 판결인정, 배상위한 입

법요구, 3)역사교과서의 올바른 기술과 철저한 역사교육요구, 4)유엔인권위가 발행한 쿠마라스와이 권고와 게이 맥두걸 권고 수용과 법적 책임이행요구 등 4개항이 정리되었다. 2000년 12월에는 민간에 의한 국제전범재판 여성법정이 열리고 2001년에는 일본국왕의 전쟁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이뤄냈다. 여전히 일본정부의 공식 배상을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로써 여성들은 가장 성공적인 운동의 전범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북한 입산모와 어린이를 위한 식량지원 활동

북한이 1995년 이후 자연재해로 심각한 식량난에 봉착, 세계원조기구들의 식량지원을 호소하고 나오자, 평화여성회와 여성단체연합, NCC 여성위원회는 즉각 북한돕기 캠페인을 벌여 1997년 8월에 1억5천만원 상당의 분유를 북측 여성단체에 전달하는 순발력을 보였다. 이때는 한국정부가 민간의 대북 지원활동을 허용하지 않던 시기였다. 국민의 정부가 대북포용정책을 실시하면서 1999년 이후에는 우리민족 서로돕기, YWCA, 새마을부녀회, 여성지도자연합, 교회여성연합회, 원불교여성회 등 여성단체들의 지원활동과 소규모 여성대표단의 북한방문이 이어져 어느 때보다도 민간 여성들의 접촉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민화협여성위원회, 여성단체연합, 평화여성회가 북한여성지원활동을 다시 모색하고 있다.

3) 이밖에도 여성들은 '분단지역 평화기행', '평화.통일 세미나', '교육', 통일마라톤대회, 반통일적 법과 제도 바꾸기 캠페인, 평화장난감 바꾸기, 군축운동, 소파개정운동 등을 비롯한 여러형태의 통일분야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또한 민화협 여성회를 통해 여성들의 금강산 평화기행이 이뤄지고 있어 남북화해를 향한 대중 여성들의 참여를 자극하고 있다.

4. 남북화해와 통일을 위한 여성들의 주류화 전략

이상에서 보았듯이 여성들은 80년대 이후 꾸준히 통일논의를 시작해 왔고 90년대 와서는 어떤 부문에서도 이뤄내지 못한 획기적인 남북여성교류를 견인해 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정부의 통일백서에 기록되지도 않았다(정현백, 2000). 남북여성들이 이미 군사분계선을 넘어 서울과 평양을 왕래했지만 정주영씨가 소매를 붙고 방북할 때 언론들은 이것을 민간이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방북하는 것으로 보도했다. 그만큼 여성교류는 역사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이런 관행은 최근 남북화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서 붓불 터지듯 쏟아진 TV프로나 관련기사들에서도 여성은 보이지 않았다(정현백, 2000).

이런 현상은 통일영역에서 여성의 주류화 노력이 얼마나 지난한가를 말해주는 동시에 이제는 보다 입체적으로 주류화 전략을 논의할 때라는 반성을 갖게 한다. 주류화 전략은 정책분야에서 여성을 가시적 존재로 만드는 일로부터 미디어에 여성의 통일관련 활동을 드러나게 하는 일까지 광범하게 탐색되지 않으면 안된다. 오늘의 논의를 주류화 전략에 두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몇가지 제안을 제시해 본다.

1) 통일협상에 여성대표 요구

지난 6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성들(평화여성회, 여연 등)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통일협상 팀에 여성대표 30% 참석을 요구한바 있다. 또한 여성지도자들은 대통령과 민간단체대표들과의 청와대 오찬 모임 시 이런 요구를 직접 대통령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대통령의 반응이 있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여성계의 구체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부와 남북사무국 내에 여성전담 부서 신설을 요구하고(김윤옥, 2000) 모든 통일관련기구, 위원회 등 통일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부터 실천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의

30%이상 참여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2) 북한여성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운동과 메칭펀드제도 요구

중요한 주류화 전략의 하나는 여성들이 실제로 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다시말해 여성의 손으로 역사를 다르게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통일의 파트너가 생존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남북화해의 길은 역시 그들과 함께 짐을 나누어 지면서 여성들의 조건을 바꾸어 나가는 일이다. 아일랜드의 경우 대기근 기간중에 영국인들이 무관심, 방임적 태도로 대했다는 것이 15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기억되고 아픔으로 되새겨지고 있다(Pilger, 1995, 정병호 글에서 재인용).

최근 북한의 식량위기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북한을 지원하는 세계 원조기구 관련자들은 아직도 국제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에서 가장 취약한 인구는 아동, 노인, 임산모와 수유여성, 대가족의 일원, 그리고 산업부분 근로자들의 순이다(Karin Lee, 1999). 이미 남북한 어린이들과 청년의 신장 차이가 현격해졌고(1997년 남북한청소년의 키차는 12.2cm, 체중차이는 3.6kg-20.5kg;박순영, 1999), 많은 어린이들은 영양결핍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임산모들은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을 자주 왕래하며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미국친우봉사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AFSC) 카린 리는 임산모 및 수유여성의 영양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신생아의 경우에도 체중이 3.4kg에서 2.5kg으로 줄어 들고 있다. 면역체계가 덜 발달된 저체중 아기들은 평생동안 질병에 감염되기 쉽다. 검사를 받은 여성 중 1/3이 빈혈이며 난산 또한 증가 추세다. 원조단체 관련자들은 특히 임산모 및 수유여성들이 자신에게 배급된 식량을 가족과 나눠먹으려 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더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Karin Lee, 1999). 여성들은 새 활고로 아이 낳기를 회피하지만 의

료보급체계의 붕괴로 인해 안전한 피임이 불가능해지면서 불법낙태로 인한 건강문제도 심각하다는 탈북여성들의 증언도 있다(박순영, 1999)

이밖에도 북한여성들은 식량위기에서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식량을 구하는 역할은 대부분 여성의 몫이 되고 있다. 가족들 생계를 위해 대부분의 여성들은 산과 들로, 농촌으로, 장마당으로 떠돌면서 소규모 장사기길에 나서고 있다. 림금숙은 90년대 이후 식량위기 속에서 북한사회가 현재까지 유지되어 올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의 하나가 북한 여성들이 가정과 자식들을 위해 분부해온데 있다고 지적할 정도다. 북한여성들은 행상활동이나 식량구하기 활동으로 과중한 노동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며 동시에 떨감, 식수, 전력 부족에서 오는 가사노동량 급증으로 몇배의 노동부담과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과중한 노동부담으로 여성들은 건강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 남편과 자식을 굶겨 죽일 수 없다는 강박관념으로 먼거리 장사길에 나선 여성들은 때로 굶고 지쳐 심지어는 기차안에서 앉은대로 죽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림금숙, 1999). 그러므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민간의 식량지원, 의약품, 의류 지원등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의 시선을 북한여성들의 위기상황에 둘 필요가 있다. 굶주림 해결이 가장 큰 문제인 상황에서 이를 도외시한채 교류만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인 처사다. 우리는 굶주리는 이웃을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남북의 진정한 교류는 상대에 대한 인간적 관심에 기초를 둘 때 그 진정성을 얻을 수 있다. 어떤 형태로든 북한여성의 위기상황을 함께 나누어지는 실천이 필요하다.

그런데 인도적 지원사업에서 여성들은 큰 딜레마에 빠진다. 경제지원에서 멀리 있는 여성들의 모금활동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 부족도 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처럼 국

가의 지원을 제도화하는 장치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NGO들은 매칭 펀드(Matching fund, 또는 Matching grants)방식의 정부지원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 제도는 재정협력방식의 전형적인 형태로 NGOS가 특정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일정부분을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를 정부가 재정지원하는 방식이다. Block grants 방식도 있다.

이것은 정부가 개별사업에 대해 심사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개의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부분을 해당 NGOs에 일정액을 총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NGOs의 사업이 장기적 성격을 지닐 경우 1년이상 장기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Multi-year funding 방식도 있다.

이와같이 선진국 정부는 대외원조 NGOs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같은 방식이 도입되면 NGOs 사업의 '규모문제'와 정부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직성'을 해소하고 남북사회통합의 기반을 만들어 갈수 있는 장점이 있다(조한범, 1998). 여성들은 이런 제도적 장치의 도입을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북한여성들과 어린이에 대한 지원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남북여성교류의 제개

남북여성교류를 트는 일이야말로 주류화 전략의 주요 부분이다. 실질적인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남북화해를 위해서는 상대를 서로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접촉을 늘려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남북여성교류는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류에 있어 유념할 것이 있다. 무조건 교류가 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어떻게 교류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중국 조선족사회에서는 남한인에 대해 매우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남한인들이 지나치게 우월감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상호작용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서로에게 보상을 줄 때 오래 지속될 수 있고 서로에게 호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며 교류에 임해야 한다. 또한 교류를 통해 서로를 협력 파트

너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윤덕희, 1999).

여성교류의 의제개발도 매우 중요하다. 우선은 북한 여성들의 관심사에서 출발하고 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이 지혜일 것이다. 예컨대 북한사회가 자랑하는 탁아소제도라든가 여성들의 높은 정치참여제도를 배우는 모임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남북여성의 공동관심사에서 출발하는 일도 필요하다. 정신대 문제처럼, 일본의 뉴가이 درا인 문제나 군국주의 부활문제 같은 것이 남북여성들의 공동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각 분야별, 직능별로 여성교류가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4) 여성이 소외되지 않고 여성이 동일의 주류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여성 대중의 참여를 확보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과 통일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인식하게 만드는 NGO의 노력과 미디어의 기획이 매우 중요하다. 통일이 지나치게 정치,군사,경제적 측면에서 다뤄진 결과 일상적 삶과 유리되어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오랜 냉전의식과 피해의식이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상의 삶속에서 통일을 읽어내고 사고의 폐러다임을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가장 적절한 방식은 역시 영상매체다. 영상매체를 통한 대중여성의 관심환기 노력이 보다 집중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5) 대 미디어 전략

주류매체에서 통일관련 여성의 활동과 여성의 견해는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성들의 일반적 경험이고 불만이다. 영국 여왕의 어머니 기사는 대문짝만하게 실려도 국내 여성들의 통일활동은 보도되지 않거나 보도된다 해도 아주 미미한 기사로 처리된다.

여성들의 이런 경험과 불만은 여성이 통일 주류세력으로 나서는 홍보전략이 얼마나 긴요한가를 알게 한다. '언론에 뜨지 않으면 사건이 아니

다'라는 말처럼 통일분야에서 언론의 보도 없이 여성들의 주류화는 어렵다. 비교적 여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미국에서조차 TV뉴스에서 여성이 취재원이 되는 경우는 10%-15%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중 절반이 어머니, 주부, 이웃, 뉴스에 나오는 남자의 가족 등 사적 인물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뉴스가 남성에게 독점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여성을 공적영역에 대한 관심에서 소외 시킴으로 사적 영역에 묶어두는 결과를 초래한다(유재천, 1999).

따라서 이제는 통일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전개도 중요하지만 이와함께 홍보전략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때다. 우선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자원에 대한 검토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새 방송법에는 시민 액세스 프로그램을 1주 60분간 의무적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다. 여성들이 주도하는 미디어들도 있다. 전에 비해 많은 여성언론인이 있다. 이런 자원을 활용하고 연대하는 전략이 가장 손쉬운 전략일 것이다. 최근 세계평화운동에서도 미디어에 관한 논의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오랫동안 미디어가 분쟁과 갈등을 조장하고 여성을 왜곡시키는데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과 함께 미디어의 역할을 평화적 역할로 바꾸어 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다. 북경여성대회의 행동강령 중 한 부분이 미디어 부분에 배치되어 있다.

맺는 말

여성통일운동은 여성이 주체가 되는 통일운동이자, 여성들간의 교류를 통해 통일 후 통합과정에 대비하고자 하는 통일운동이며(함인희, 1999) 나아가 여성과 민중의 보다 평등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여성은 모든 통일논의, 정책입안과정과 실행과정에 주체로서, 주류로서 참여해야 하며 주류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여성들이 모든 과정에 여성 30% 참여를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성 주류화 전략은 단순히 참여 확대만이 아니다. 여성과 대중의 복리가 보장되는 통일사회에 대한 비전 모색과 통일방식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또한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벌여 나가는 작업도 포함한다. 북한여성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남북여성교류를 트는 일 등을 비롯해 다각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남북화해와 통일과정에 대중여성의 참여를 확장해 가는 일도 긴요한 주류화전략이다. 여성의 목소리와 행동이 사회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 또한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

통일과정에서의 여성의 역할 모색

이문우 |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통일과정에서 일어나는 일과 생각들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 이후, 한국 현대사는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되었다. 남북정상회담이 지니는 중요한 의미는 그것이 한반도문제의 해결 구도를 '북미축'에서 '남북축'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남북관계 개선이 남북 최고위급 지도자의 결단에 의존하였던 과거와는 달리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는 어느 정도 구조적 산물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북한은 경제적 시련기를 일정정도 극복하면서,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 남북 간의 경제협력과 대외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고, 또한 정치적으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화의 길에 들어서면서,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는 시도를 구체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제 남북관계는 그간의 적대적인 공생관계를 넘어서서, 상호 협력적 공생관계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지는 않지만, 시민사회단체의 활발하게 시도하고 있는 민간의 교류 확대는 통일에 상당한 성과를 가져 올 것이다. 민간교류의 확대에 못지 않게 정부 또한 당국간의 회담도 꾸준히 진행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볼 때 그 성과는 착실히 쌓여 가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후 그 합의내용에 충실하기 보다는 아직까지 사안에 따른 과거 이데올로기 접근방식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상당하다.

불건강한 정치문화나 언론의 자의성과 보수성으로 인해 남북관계 개선을 둘러싼 국론은 분열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단히 감정적이거나 비합리적이다. 그동안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너무나도 힘든 경제적 상황에 봉착한 북한동포들을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의 표시는 어느새 '퍼주기 신화'로 발전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더욱 절망적인 사실은 이런 의견 차이가 합리적, 민주적인 방식으로 토론을 통해 좁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상황에서는 주변상황으로 인해 통일문제나 평화적인 사안에 있어서 머뭇거리고 있는 남북관계에 조급함을 보이기 보다는 남한 내에서도 남,남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도 많은 역점을 두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그동안 남한 내부의 심각한 내부균열은 과거의 통일운동이나 교육의 방식으로 해소되는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통일운동과 평화운동을 전개하는 데서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관용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교육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뿐 만 아니라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라는 형식적 논리보다는 민주주의의 실천적 장점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체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이 교육과 함께 병행한 실천적 사고들이 건전한 통일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이어져 성숙한 준비자세가 필요하다.

남북공동선언 이후 여성의 과제

‘남북공동선언’ 이후 정부당국과 각 부문의 NGO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통일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있기 전부터 여성제는 일찌감치 통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남북관계가 경직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1991년에서 94년 사이에 이미 진보적인 여성운동은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4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는 특히 1992년 9월 1~6일에 평양에서 열린 제3차 토론회는 남측 대표단이 판문점을 통과해 북을 방문한 최초의 민간교류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큰 사건이었다.

또한 군위안부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실무회담이 지난 몇년간 베이징 등지에서 여러 차례 개최되었고, 이것은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에서 남북이 공동기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커다란 결실을 맺었다. ‘남북공동선언’ 이후 이러한 남북 여성의 만남은 더욱 활발해져 2000년 하반기에는 다양한 단체가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하였다.

2000년 10월 3일의 북조선 노동당 창립 55주년 기념식에는 13개 정당·사회단체와 함께 여성단체로는 유일하게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초청을 받아 북을 방문하였다. 곧이어 11월 19~25일에 우리민족서로돕기 여성위원회, 여성단체연합, 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부녀회, YWCA 등 5개 단체 대표가 평양을 방문하여, 여성교류를 위한 실무회담을 하였다.

2001년 6월 15일은 6.15 1주년을 기념하여 금강산에 남한의 여성들이 참여하여 북한여성들과 함께 만남의 자리를 이루었고, 8월 15일에는 남북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일의 꽃목걸이를 엮어가자고 하면서 평양에서 뜻깊은 연단회를 가졌다.

북한 여성과 여러 차례 만나면서, 남한 여성과 여성운동은 우리가 알아야 할 몇가지 과제를 생각하게 된다. 첫째로, 북한 여성과의 만남 이전에 이미 남한 사회는 북한 여성 이미지와 만나고 있다. 이는 북한 여성의 진정

한 모습에 대한 왜곡의 우려 못지않게, 남한 사회의 가부장적 담론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역기능을 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남한의 여성과 여성운동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격히 재구성되는 북한 여성 이미지를 분석하고, 그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를 검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북한 여성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남한 여성운동의 현명한 대처 자세가 필요하다. 남북 여성간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겪게 될 차이와 동질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우리는 북한 여성에 대해 어떤 정형을 만들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서구적인 정교한 이론적 잣대로 그들을 재단하는 것이나 아닌지 등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오만한 자세로 동독 여성들을 평가했던 서독 여성들의 태도가 통일 후 오랫동안 동·서독 여성 사이의 불화를 낳았던 독일의 역사적 경험을 꼼꼼이 반추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로, 여성교류는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남북교류 수준과 양에 비하자면 미미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체 통일과정에서 여성이 지니는 영향력을 냉정히 측정해보는 시금석으로 삼아 더욱 활발한 여성교류 활동을 전개하는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 여성과의 만남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남북 여성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남북을 아우르는 여성주의를 위하여

남북 여성의 만남에서 중요한 점은 남과 북의 여성이나 여성의 지위를 단순히 비교·평가하려는 자세는 버리는 일이다. 우선 필요한 전략은 서로의 차이를 알고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50여 년 동안 폐쇄된 집체문화의 사회, 고난의 행군 시기를 보내면서 전국민이 생존에 몸부림치

고 있는 북한 사회의 여성을 우리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마찬가지로 남북 사이의 동질성을 쉽게 추출해내려는 발상도 위험하다. 오히려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북한 여성 알기’이다.

진정한 남북 여성의 통합을 위해서 우리에게 ‘제3의 길’이 필요하다. 이는 다름아니라 북한 여성이 지닌 긍정적인 이질성을 부각시키는 것을 통해, 남의 여성에게 북의 여성들이 지닌 여성적 정체성 속에서 남한 사회에 필요한 대안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북한 여성들의 사회적 생산참여에 대한 자긍심, 솔직함, 활달함, 공적 영역에서 쌓아온 자의식, 지역공동체에의 헌신 등은 남한 사회의 여성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덕목이다. 북한의 여성성이 지닌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키면서, 북한 여성을 남한 사회의 담론에서 정당하게 자리매김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북한 여성의 긍정적 이질성에 대한 찬사는 향후 남/북한 여성의 대등한 만남을 준비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혹자는 이런 주장은 북의 체제가 지닌 문제점, 예를 들면 개인숭배나 여성에게 순종과 혹심한 노동을 강요하는 사회분위기 등의 문제점을 덮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북한 여성이 지닌 부정적인 여성성의 측면이나 열악한 지위에 대한 비판과 투쟁은, 북한 여성 그들의 몫이다.

우리 남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남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북한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와 가부장적 담론에 집요한 싸움을 계속하는 일이다. 남한 여성들은 북한 여성과의 만남에서 섬부른 페미니즘을 설교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남북간의 민간교류가 자칫 남성교류, 경제교류, 기득권 층 교류로 흐르고 있는 데 대한 여성운동의 비판이 필요하다. 경제력을 지니지 못한 여성의 경우, 북한 여성과의 교류를 풀지 못하고 있고, 자연히 서로를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된다. 따라서 남북 여성교류에 대한 남한 여성계의 지속적인 요구, 여성교류에 대한 국가의 특별지원 요구, 정부의

경제지원에서 여성경제인들에 대한 우대조치 등을 통해서, 남북간의 여성 교류를 확산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금년 6,7월에 민간교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남한 여성운동은 여기에서 여성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북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권력층 내에서는 여성의 영향력이 미약하여, 여성을 배려하는 통일정책이 수립되지는 못한 것 같다. 따라서 우리 여성운동은 통일정책 수립과 그 집행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할당제 실시를 촉구해야 한다. 특히 통일관련 전문위원회에 여성비율을 높이고, 통일부 내에 여성담당 부서를 설치하는 것을 통해, 통일정책에 여성의 참여가 늘어난다면, 이는 북한당국에 동일한 수순을 밝게 만드는 압력수단이 되리라 생각한다. 정부당국간의 실무회담에서도 여성의제가 비중있게 다루어지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북한에서는 NGO운동이 부재한만큼, 당국간 논의를 통한 여성의제의 채택도 불가피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남북한 통일과정에서의 여성의 역할 모색

통일과정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일에 대한 상을 가지고 서로 화합하고 인정하는 분위기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성들의 제 몫을 다하면서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을 분명히 한다면 통일사회에서는 여성차별에 대한 문제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여성주의 시각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과정에서의 여성들의 역할을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다양한 실천활동이 모색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1) 통일문제에 대한 공동된 인식을 가져야 한다.

남북한 여성들의 경우 여성주의적인 관점이 곤철되는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문제에 대하여 공동된 인식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남남간의 북북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여성들이 상호 남북에 대하여, 그리고 통일과 여성 문제에 대하여 공동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원활한 교류와 협의의 과정이 요구된다.

2) 주도적인 통일정책 수립과 여성들의 정치 세력화

여성들의 공동된 인식이 통일정책에 반영되도록, 더 나아가 통일정책 수립을 주도하도록 적극적으로 여성들을 정치 세력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제도정치로 여성지도자들의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비 제도권 내에서의 여성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이데올로기 타파와 새로운 여성주의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오래동안 길들여져 온 가부장제적인 제도의 철폐와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분단으로 인한 이데올로기를 타파하고 새로운 여성주의 문화를 확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부장제로 인한 억압과 불평등은 남북 여성들의 공통점으로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서 이것이 타파되지 않는 한, 통일이 되어도 여성들의 삶의 질은 결코 향상되지 않을 것이다.

4) 반봉건적이고 비민주적인 법 제도를 개혁하여야 한다.

남한 내에 여전히 남아있는 반봉건적이고 비민주적인 법 제도의 개혁과 제정된 법의 제도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즉 건강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여성들은 자신의 법적 권리를 당당히 누림과 동시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통일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여러 이슈에 관하여 적극적이어야 한다.

군축문제와 국방 정책 등 통일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평화와 통일의 길로 가는 과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단이데올로기 고착과 상호불신감을 심어주는 정책들이 없는지 적극적인 과실과 참여를 표시하여야 한다

6) 냉전적 분단 의식 극복을 위한 노력을 활발히 벌여야 한다.

남북의 동포들은, 남북의 여성들은 오랫동안 떨어져 생활했기 때문에 상호 체제와 이념에 의해 길들여져 왔다. 이와 함께 자신의 체제와 이념이 옳다는 입장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상호비방과 불신, 반목 등이 팽배했었다.

하지만 그동안의 너무나도 상이하던 환경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으므로 그 간격을 좁혀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화해와 협력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7) 북한을, 북한 여성을 우리 식의 입장에서 이해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무의식 중의 사고가 나를 중심으로, 내가 사는 사회를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길들여져있고, 그것은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함께 살기 위한 통일의 과정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다르게 살아왔던 북한의 동포에 대해서, 북한 여성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보는 훈련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북한 사회도 마찬가지로 그 체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오해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선입견을 가지지 않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 여성들에게 통일을 향한 미래는 열려 있다. 우리 여성들이 회구하는 평화공존의 시대는 어떤 내부식민지도 생겨나지 않는, 성평등과 민주주의가 아울러 실현되는 공간이다. 그런 점에서 여성들은 ‘핏줄’에 호소하는 통일론, 통일이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리라는 실리론을 넘어서서, 통일사회 자체가 대안사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위해 북한 여성과 단결하여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여성의 시각으로 본 통일의 과제

김숙임(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1. 왜 통일을 여성이 이야기하는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정세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미국의 테러참사와 그 보복을 위한 전쟁은 세계 안보환경과 경제상황의 엄청난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 변화가 자국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각 국가에 속한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끼칠 파급은 무엇인지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한국인은 분단되어 있어 남북관계에 받게 될 영향이 더욱 염려된다. 8.15민족공동행사의 돌출행동에 의한 책임논란으로 통일부장관의 사퇴와 대북포용정책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남북장관급회의의 재개 등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은 계속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테러사태에 대한 대응이 장기적인 전쟁으로 전개된다면 국제정세는 군사안보가 다시 강조되고 군비증강과 함께 강력한 군사화의 길을 가게 될 것이며,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보가 명분으로 작용, 한반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심각할 것이다. 북미관계의 진전은 후퇴하고 다시 부시정부의 미사일 방어체제구축을 위해 북한을 광궤 및 불량국가로 지명되었던 것처럼 북한의 위상이 다시 부정적으로 재규정 될 것이다. 또한 이번 미테러대참사는 미국의 보수강경론자에게 전 세계의 반대에 부딪혔던 미사일방어체제 실현의 명분이 될 것이 우려된다.

이처럼 한반도는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의 영향 아

래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자국에 미칠 영향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이 지금의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이성적으로 평화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라지만 물리적 보복으로 견잡을 수 없는 폭력양상으로 치닫는다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

‘교토 기후 협약’에 대한 거부, ABM(탄도미사일제한)조약의 무시 미사일방어체제 강화, 최근의 인종차별철폐 유엔회의에서의 팔레스타인문제 거론에 대한 불만으로 일방적인 퇴장 등 부시 정권의 등장 이후 미국은 국제법적 합의나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노력을 거의 철저히 배타적으로 대해 왔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은 늘어갔고 세계적 반발의 강도가 높은 수위에 도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심리적 공황이나 보복의 논리를 벗어나 미국 스스로 야기한 국제질서에 대한 패권적 사고를 수정해야 하며 우리는 한반도에 끼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타격을 받지 않도록 그 대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왜 통일을 이야기하는가?

이러한 세계체제구조의 반평화가 자국의 평화와 무관하지 않고 특히 분단된 상태의 극히 취약한 체제를 가진 한반도는 강대국의 정치, 군사, 경제적인 영향을 즉각적으로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강대국으로부터 독립된 위상을 갖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민족의 자주적인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전쟁의 위협과 희생, 패권주의 국가에 의한 휘둘림, 군사유지와 그 긴장으로 인한 개인의 인간다운 삶, 삶의 질의 향유, 정신적 평화는 저당 잡힐 수밖에 없다. 주변환경에 의해 늘 위협받고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불안과 긴장 속에 살며 민주주의와 개인의 인권이 항상 침해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대상 즉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했던 우리 사회는 동족과의 적대적 관계로 인해 과생되는 긴장과 불안, 공포, 사고의 부자유로부터 온전한 인간성을 유지하기 힘들게 하였다. 이와 같이 분단으로 인

한 국제적, 민족내부적인 구조적 갈등은 인간의 내적 평화와 외적 평화를 분리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사회적 평화와 개인의 평화는 함께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개인의 인권과 평화를 중시할 때 지역사회와 세계의 평화는 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어떠한 이유로든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살상할 수 없다. 설사 미국의 강경일변도의 외교정책이 사태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전쟁을 방불케하는 테러와 그로 인한 인명살상, 또 이에 버금하는 전쟁을 불사하는 피의 보복을 위한 다짐... 누구에게 개인의 인권과 생명, 평화를 묵살할 권리를 주었는가. 힘의 논리는 무고한 생명의 희생과 힘의 악순환만을 제공할 뿐이다.

통일을 이야기해야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들 일상의 평화가 분단으로 인한 사회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침해받기 때문이다. 여성이 통일에 접근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한반도의 통일과정이 평화과정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간 여성은 분단으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였다. 전쟁이후 우리 어머니세대가 겪은 이산의 아픔, 혼자서 힘들게 가족을 부양해야만 했던 그 무겁고 쓸쓸했던 삶의 고통, 분단으로 인한 군사주의의 강화로 인한 성폭력과 매매춘의 일상화, 막대한 군사비 지출로 인한 여성과 아동 복지혜택의 제한 등으로 여성의 삶은 황폐화되었었다. 물론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피해는 남성도 예외는 아니다.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죽음, 병역의 의무 등 남성에게 부과되는 가부장적 의무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30년 간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통일운동은 정치지향적인 운동이 될 수 밖에 없었고, 통일방안 중심의 통일논의와 민족주의 담론의 한계와 함께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인 통일운동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남북공동선언과 함께 이제 통일운동의 일차적인 과제는 평화공존체제의 기반마련이 되었고, 통일운동을 포괄하는 보다 확장된 범주로서 평화운동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¹⁾

이제 여성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역사의 주체자로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의 통일이 보다 평화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평화적인 방식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소외시키는 방식으로 통일이 진행됨을 방지하고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는 정책이 통일과정에서 일관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생명을 낳고 돌보는 역할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수행해온 여성들은 평화적인 감수성을 갖고 평화를 향한 통일과정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 -통일운동에 관한 성찰-

모든 통일방식은 좋은가, 통일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접근방법과 태도라도 무관한가?

이번 평양의 8.15 민족대축전행사에서 있었던 남측대표단 일부의 정부와의 약속을 어기고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앞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해 분열상을 드러낸 것과 일부 인사의 만경대 방문시의 방명록 파문 등의 돌출행동으로 인해 과급된 부정적 결과가 우리에게 통일여정을 향한 자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8.15 경축행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지나친 이상주의적 통일주의도 비현실적인 색깔론도 자제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일부 방북단의 돌출행동의 책임을 물어 입동원장관의 해임건에 대한 오마이뉴스인터뷰(9월5일자)에서 강원통북사는 "정부와의 약속을 어기고 돌출행동을 한 민간단체사람들은 대단히 잘못을 했고 남북한 평화교류에 엄청난 손해를 입혔다며 공산당을 때려잡아 없애자는 생각과 우리 동포이기 때문에 무조건 합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외눈박이들이 평화정착을 방해하는 세력들"이라고 말했다.

6.15남북공동선언의 '느슨한 연방제'에 대한 합의는 사실상 남북의 과도

1) 정현백, "보다 인간적인 얼굴을 지닌 통일과 여성의 과제", 세계평화를 위한 한반도 화해와 통일 국제회의의 2001, 283-284쪽

기적인 단계를 상정한 것이고 통일이 장기화됨을 의미한다. '통일'이라는 용어보다는 '통일과정'이나 '공존체제'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²⁾ 즉 다른 두 체제가 공존하면서 평화를 증진하는 과정에서 내적통합과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통일과정에서 민간이 더 집중하고 전문화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은 정치적 통합, 외적 통일부분보다 사회문화통합, 내적 통일부분일 것이다. 사회문화교류를 평화적으로 지속하며 서로 다르게 형성된 가치관과 행동양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 차이를 좁혀가는 방법을 개발하여 평화공존의 기반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민간의 역할일 것이다. 남북의 다른 두 체제가 평화공존할 수 있으려면 정부의 정책이 상당한 기술을 가져야 하며 민간단체 역시 예외가 아닐 것이다.

바람직한 사회문화체제를 형성하는 민간의 역할을 위한 출발이 이전에도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본격적으로 사회문화교류가 전개되고 있다. 금강산에서 있었던 6.15한통기념민족대토론회와 8.15민족대축전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남측의 대거참여와 획일적인 정체성을 가진 북측과의 만남이었다. 얼마나 많은 다름과 차이가 표출되었을지 상상할 수 있고 이것 또한 서로의 이질적인 모습을 경험하는 또 하나의 통일을 향한 내적 통합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일운동은 국민의 정서를 정확히 읽고 국민의 공감을 얻으면서 함께 가는 운동이어야 하고 국민의 지지기반이 있어야 존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적 상황에 근거해서 대중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질적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통일운동은 각계각층과 함께 하는 대중운동으로 발전할 수 없다. 지나친 친북적인 태도도 사사건건 색깔론의 소모적인 시비도 더 이상 평화공존기반의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극단주의적인 시각에서 벗어

2) 정현백, “진정한 내적 통일의 의미와 과제”, 1쪽

나 중요성과 대결의식을 녹이고 화해와 공존으로 가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보다 바람직한 인간의 입장은 남과 북의 민중의 편에서 통일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남과 북의 정권의 한계를 넘어 양측을 함께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협력하기를 촉구해야 한다. ‘북한 퍼주기’ 등으로 표현되는 대북 정책에 대한 의구심도 북한 민중의 편에서 남북문제를 보고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평화공존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및 평화 NGO로서 양측 정부에게 모두 욕먹을 각오를 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통일할 마음과 능력과 준비가 없으면 그 통일은 엄청난 재앙에 불과하다. 남남간이든 남북간이든 다양한 차이에 대한 이질성 극복이나 동질성 회복이 아니라 서로의 이질성 수용을 위한 합리적인 공존의 틀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세력과 입장을 합의하고 조정,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신장되어야 한다. 남북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남과 북의 정부를 균형있게 보는 시각, 구체적인 운동방식의 개발 등이 통일운동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15행사 이후 한 통일운동가는 “남북관계의 현실은 6.15 이후 대화와 화해로 접어들었지만 대립과 갈등이 같이 존재하는 엄중한 상황이다. 통일에 대한 의지가 강하면 절제하는 의지도 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행착오를 관용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한계도 지적하고 싶다.....부문운동은 통일운동의 과제를 사회운동에서 어떻게 답을 것인지 고민해야한다. 통일운동은 뜻과 논리와 생각만이 아니라 객관적 정세 속에서 어떤 수단을 통해 이룰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³⁾ 이제 더 이상 자기만족적인 잣대나 뜨거운 열기가 아닌 따듯하되 냉정한 접근과 유연한 사고와 사려깊은 행동 등 통일운동에 대한 진지한 자기 성찰이 요청된다.

3) 김창수, '8.15통일대축전 방북단 세 단계 3인의 좌담', 한겨레신문 8월27일, 22-23면

3. 평화·통일환경의 어려움, 그 근원은

몇 해 전 여성운동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통일운동에 대한 고민을 듣는 기회가 있었다. “통일운동에 대한 책임감은 있지만 통일운동이 갖고 있는 정치중심주의 때문에 거리감과 함께 어렵고 복잡한 일로 느껴지고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과 함께 “남북의 다름이라는 두려움과 심리적인 거리감을 어떻게 좁혀야 할지...그래서 여성운동가들의 마인드형성을 위해 통일, 평화문제에 대한 개념 인식과 심리적 정서를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⁴⁾

지금 우리사회는 군부독재를 벗어나 어느 정도 형식적 민주주의를 이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의회민주주의에서 참여민주주의를 향해 향해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우리 속에 뿌리깊이 박힌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상처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이데올로기가 계속 한반도의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일상에서 반평화를 형성하는 주요기제이자 원인이기도 하다.

군사주의-안보와 인권

미국의 테러대참사는 전세계 인류에게 ‘지구촌의 평화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희생당하는 것은 ‘평화’다. 평화를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키지만 전쟁을 여지없이 개인의 평화를 파괴하는 일로 시작된다.

4)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 ‘남북한 통일대비 여성들의 역량강화 방안모색을 위한 좌담회’, “여성의 통일의식과 태도조사 및 통일의식 함양방안연구”277-299쪽, 2000년

“평화를 원하면 전쟁에 대비하라”의 군사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평화주의자들은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라”고 주장한다. 비무장지대의 전망대에 가면 바위에 크게 새겨진 글(전쟁에 대비하라)을 볼 수 있다. 한반도의 특수상황에서 평화주의자의 말을 사용하면 안보의식이 없는 사람이라 분노의 대상이 되거나 이적시될 수 있는 경향이 높은 것이 아직 우리 현실이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든 최상의 방위전략은 평화정책과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는 평화능력이다. 미국은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고도의 인내를 가지고 군사적인 물리력이 아니라 평화적인 정치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해야한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2000년을 평화문화의 해를 선포하면서 1999년 5월 헤이그국제평화회의에서 “전쟁없는 21세기를 만들자”고 했던 정부와 비정부의 결의가 무산되고 말 것인가, 테러와 對 테러의 악순환은 오로지 군사력의 의존하는, 전쟁의 21세기로 치달을 것이다.

한국사회는 전국이 군사시설로 가득찬 거대한 군사기지, 병영국가이다, 남북의 군인을 합하면 180만 대군으로 더욱 심각하다. 한국사회의 군사화 과정은 북한을 주적으로 한 적대관계 유지, 전쟁 위기감 조성, 이를 대비한 유사시 긴급대응 요구(민방위훈련), 국가방어의 신성화, 국민개병제, 30년 이상의 군사통치의 토대와 이념적 기반, 거기에 따른 문화 형성 등의 흐름을 볼 때 군대문화의 시민사회로의 접목인 군사문화라는 한정된 의미로 이해될 수 없다. 이미 사람들의 내면과 일상에 하나의 이념이나 가치체제로 자리잡은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군사주의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군사주의는 전쟁을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사회활동으로 보이게 하는 가치체제나 전쟁, 전쟁준비와 관련한 사회적 행동의 총합으로 이해되고 있다.

재클린 록은 현대의 민족이나 우방들 또는 집단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명분 하에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집단적 폭력을 사용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이념의 줄기가 군사주의라고 규정했다.⁵⁾ 갈등 및 분쟁의 해결을 위해 평화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힘의 논리에 초점이 가 있는 군사주의

는 남자는 강해야 하며 힘의 논리에 적응하여 성공해야한다는 가부장적인 남성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남성들은 선택의 자유 없이 징병제에 의해 일정기간 군대에 복무를 해야하고 그의 가족들 또한 군대폭력의 피해를 우려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제대하는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현재의 병역제도는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의 변화와 병역인구의 과잉현상 등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병역제도의 개선, 군대폭력문제에 대한 대책(군대기피로 인한 병역비리, 탈영병, 군의 문사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문제⁵⁾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그 대안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국방의무는 신성한 국민의 의무이고 국방부는 어떤 문제도 제기할 수 없는 성역으로 군림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인권을 위해 안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안보를 위해 개인의 인권이 철저히 무시당하는 모순을 볼 수 있다.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인간의 인권을 위해 안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위에 군림하는 안보는 너무나 역설적이다. 분단과 군사안보라는 이유만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일까? 물론 군사안보는 분단되어 있는 우리 현실에서 일정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남성들의 인권에 대해 보다 귀 기울여야 한다. 인간중심의 안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일상에서의 군사주의 현상은 획일적인 교육제도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청소년 사춘기의 예민한 시기이자 자기정체성을 향해 고민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인 중학교 때부터 아이들에게는 획일적인 수업방식, 복장, 두발, 교과과목, 대입전망, 지시문화... 등 선택의 자유가 없다. 다양한 자질과 개성, 다양한 희망을 가진 아이들을 수용할 학교와 제도가 없다. 오직 명령과 복종에 의한 군사주의와 전체주의적 방식은 다양성과 인권, 자발성, 창

5) 권인숙, "우리들 삶 속의 군사주의", 여성평화아카데미2000, 평화여성화, 108-110쪽

6) 홍창욱, "대한민국 징병제의 또 하나의 폭력-군사세도와 징병제에 빚빚힌 양심", 징병제와 군복무와 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2001,

의성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학교에 자율이 아닌 규율과 규제의 군대식 문화가 주입되고 운영되는 것은 자율과 인권의식을 가진 독립적인 시민을 양산하지 못하는 교육철학과 정책의 빈곤과 함께 군사주의에 대한 인권의식 부재의 결과가 아닐까.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군사비가 정부예산의 20%이상을 차지하는 지출 규모를 차지했고 연일 쏟아지는 거대한 국방비리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에 대해서만은 안보논리, 군사주의 논리에 의해 시민의식이 발휘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군사주의에서 과연 자유로운가, 6.25전쟁이후 군사안보가 정권안보의 논리로 사용되면서 냉전, 반공주의와 함께 결합하여 안보이데올로기가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군사주의 영역은 거대한 성역으로 아무도 이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자신의 돈(세금)과 귀중한 자식의 생명과 시간을 군대에 바치면서 자신들의 인권에 대해 발언하거나 보장받을 수 없다면 이미 제도적 군사주의는 일상에서 사람들의 내면에 '우리 안의 군사주의' '내 안의 군사주의'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간 남북관계의 역사적 기록을 보면 상호 군사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볼 수 있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의 조국통일원칙과 1991년 합의, 1992년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9-12조를 보면 남북간의 무력불가침, 분쟁과 의견의 대립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방법으로 해결하고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는 내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의 안보는 군사적인 방법, 무기와 힘에 의한 군사안보가 아니라 정부와 비정부의 외교능력,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는 협상, 중재 등의 능력과 기술을 제고하여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합리적인 안보, 인간을 위한 안보로 전환되어야 한다. 앞으로 군사주의로 인한 여성문제, 병역제도에 대한 합리적 대안 등 군사주의 및 군사안보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연구, 다양한 방법으로 군사주의를 극복하는 길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반공주의-분단의 상처

반공주의는 군사주의와 함께 한국사회에서 국가권력의 핵심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오랫동안 수행했으며 국민들의 가슴에 아직도 냉전, 국가안보이데올로기로 깊이 잠재되어있다.

권혁범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반공주의는 북에 대한 적대적 감정과 비난을 사회구성원의 정신과 가슴속에 오랜 시간 내면화 과정을 통해 자동적으로 특정한 정치 사회적 사고와 행위를 유발시키는 기제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반공주의 회로판’이라고 표현했다. 따라서 특정한 자극이 주어지면 정해진 회로판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건반사적 대응(예:수상-불순-좌익/좌경-친북-용공-간첩)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⁷⁾최근 지하철의 광고판에는 “평화로운 때가 가장 조심할 때(국가정보원)”라면서 계속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반공법, 국가보안법, 반공표어 등을 통해 사람들 사이에 불신과 긴장을 조장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간의 내면을 억압하고 위축시키고 진보적이고 도전적인 생각과 행위들을 탄압해 왔다. 내면화된 반공주의는 냉전문화의 축으로서 북한공산주의에 대한 거부만이 아닌 모든 비판적 세력의 저항을 봉쇄하고 길들였다. 모든 형태의 사회적 도전과 이탈을 두려워하는 사회적 심리가 한국인의 심성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⁸⁾ 자신의 눈보다 타인의 눈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타인의 시선이 중심되는 삶을 살도록 강요당한 것이다.

반공주의적 냉전문화는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민주적 시민사회의 형성에 치명적인 장애와 함께 사람을 적과 동지로 대립적, 적대적인 관계로 만드는 병리적 현상을 일으켜 비정상적인 사회를 만든다. 또 다시 불거진 색깔논쟁은 뿌리깊은 냉전문화에 힘입은 매카시즘적⁹⁾ 수법이라고 볼

7) 권혁범, “우리 몸 속의 반공주의 회로판 읽기”, 여성평화아카데미 2000,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96-104쪽

8) 권혁범, 위 자료 인용, 104쪽

수 있다. 끊임없는 색깔론은 반공주의에 입각한 마녀사냥으로 역사발전에 발목을 잡는 행위이다. 개혁을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을 좌경집단으로 규정하고, 좌우익의 대립을 조장하여 언론과 재벌개혁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이다. 가진 자들의 공격적인 방어기제로서 여전히 냉전반공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색깔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냉전문화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정치적 합의나 선언은 군사적 변수나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쉽게 와해될 수 있다. 정말 향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역사관과 세계관을 개혁하고 냉전문화를 평화문화로 바뀌어나가는 일이다. 그것이 획일적, 폐쇄적, 배타적인 반공주의 냉전문화에 길들여 있는 우리자신을 해방시켜줄 수 있는 대안이다. 인간에 대한 불신, 경계에서 벗어나 남을 지지하고 축복하는 문화로 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의식세계가 진정한 자유를기 위한.

우리 안의 파시즘 - 나의 정체성은

시대적 상황의 절박성에 의해 일정한 대의만 공유된다면 집단내부의 권위주의적인 문화와 함께 갈 수 밖에 없었던, 그리하여 또다시 권위주의 집단문화를 답습하는... 결국 대안 세력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조차 한국사회의 파시즘적 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개인의 모든 활동은 국가와 민족 전체의 존립, 발전을 위해 바쳐져야 한다는 이념 아래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사상인 전체주의를 역설적으로 닮고 있었던 것이다. 독재적인 전체주의를.

근래 화두로 떠오른 '우리 안의 파시즘', '일상적 파시즘'의 문제 제기는 정치적, 제도적 파시즘의 극복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일상적 파시즘 즉 우리의 의식과 일상적 삶의 심층에 깊이 내면화되고 구조화된 규율권력의

9) 매카시즘(McCarthyism): 극단적인 반공주의 및 용공적인 언론·사상·정치활동에 대한 억압을 뜻하는 말, 동아새국어사전, 동아출판사 1996년

극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권력과의 싸움에 있어서 정치영역에서 일상적 삶의 영역으로 그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⁰⁾

진보적 이념이 삶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 아닌 관념적이고 이분법적인 논리에 의해 생산된 시대적 경험에서 사실 우리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것이다. 지나친 이데올로기 중심이 현실과 세계,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았다는 것이다. 개인과 조직, 인간과 역사가 분리되어 있었던 것이다.

힘의 논리는 자기중심주의를 낳고 민족중심주의와 자국중심주의를 낳는다. 미국은 강대국의 패권적 논리에 빠져, 세계가 역사의 잘못된 유산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제사회질서를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을 번번이 거부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반감을 계속 높여 왔다. 결국 이번 미국이 당한 참사는 미국에 대한 세계적 반감의 절정이 테러의 방식으로 표출된 것이다,

이상수는 “우리는 일본의 극우적 사고방식을 비판하면서 우리 자신의 똑같은 자국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을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는데 익숙하다”라고 말한다.¹¹⁾ 최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파동 등 일본의 소수의 우익에 의해 극우로 치닫는 현상에 대해 도미나가 겐이치는 “헌법상으로 일본은 정치적 근대화를 달성했지만 단 한번도 밑으로부터의 개혁이 성공한 경험이 없고 위로부터의 개혁만 있었기 때문에 시민혁명이나 시민사회의 단계를 거친 서구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서울대 김용덕교수는 ‘이는 결국 독자적인 자기판단을 할 수 있는 개인의 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성숙되지 않은 사회에선 리더십이 잘못돼도 저항보다는 모두 따라가는 양태로 나타난다.’고 말한다.¹²⁾

우리 안에 있는 파시즘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정체성을 억압하고 왜곡시켜 더불어 사는 능력을 파괴시키는데 있다. 우리 내

10) 임지현, “파시즘은 살아있다”, 『우리 안의 파시즘』, 삼인, 13쪽

11) ‘이상수의 동서횡단’, 한겨레21, 4월26일, 355호.

12) ‘적지만 강한 우익, 광기의 구심력’, 김영희기자, 한겨레신문2001년4월17일 21면

면에 있는 파시즘의 청산없이 진정한 민주적 시민사회 발전은 불가능하다. 앞으로 반평화적 파시즘의 청산작업은 분단과 체제유지논리에 의해 파생된 군사주의, 지나친 민족주의, 자국중심주의 등의 속성을 함유하고 있는 남과 북 또 그 곳에 몸 담아 살았던 우리 모두의 공통과제이다. 정상적인 사회는 한 개인이 한 사회에 대한 건강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고 그에 기반한 진정한 자존감, 자기실현이 가능한 사회를 말한다. 나아가 타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나는 그간의 모든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운가’. ‘진정한 자기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할 때이다.

4. 통일을 위한 여성의 참여와 평화 만들기

통일운동의 여성대중의 참여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일운동이 갖는 일정한 정치적 때문에 통일운동은 남성의 영역으로 인식되거나 구조적인 반평화적 요소로 인해 일상에서 여성 대중이 참여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여성통일운동의 대중화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의 통일과정을 위한 역할은 무엇인가? 현재 여성운동의 통일에 대한 당면한 과제로는 ‘6.15남북공동선언 등 남북 간의 역사적 합의의 의미와 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 ‘남북한여성들의 현실과 문제’를 제대로 알고 내적 통합을 위한 준비를 하는 일이다. 8월15일 평양에서 열린 2001민족통일대축전에서 남북한 여성대표들이 ‘6.15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여성통일토론회’를 갖고 ‘6.15공동선언과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공동결의문을 발표한 것은 1991년부터 4차례 있었던 ‘아세아평화와 여성의 역할토론회’(남북민간교류의 첫 장을 연) 이후 평화공존기반과 내적 통합을 향한 남북여성교류의 새 장을 연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통일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높이도록 제도적 장치를 정부에 요구하

는 일도 중요하다. 여성의제가 통일정책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구조적인 접근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상에서 여성대중들이 통일을 보다 쉽게, 내 문제로,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길은 현재의 구조적인 반평화가 일상에서 한 개인, 또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일상의 반평화로부터 구조적인 반평화에 이르기까지 반평화적인 요인을 개선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다. 통일의 실현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통일의 실현이 평화를 반드시 보장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평화를 차분히 실현하는 것이 반평화가 중층적으로 얹혀있는 한반도에서는 더욱 현실적이라고 본다. 남한사회 내에서 일상적인 평화가 어느 정도 실현되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내적 통합이 가능할 것이다.

통일운동은 통일을 바람직하게 달성할 때까지 하는 운동이고 한반도에서 평화운동은 통일과정이 평화주의적 관점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것과 이후에도 모든 폭력과 반평화가 완전히 소멸되는 날까지 존재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평화운동에 있어서 통일운동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이다. 한반도에서 평화공존의 기반을 형성하고 확대하는 일은 통일을 포기하거나 위축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실현해나감과 함께 통일을 넘어 평화문화를 형성하는 평화운동의 과정이자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평화의 개념으로 유명한 평화학자인 요한 갈통은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정의한 바 있다. 소극적 평화는 물리적 폭력의 부재를 뜻하는 것이고 미국학자들이나 정치·경제적 문제를 지역, 국가, 세계적 관점에서 즐겨 보는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개념이고, 적극적인 평화는 구조적 폭력의 부재를 뜻하며 유럽이나 제3세계의 학자들, 그리고 정치, 경제구조에 관해 보다 더 비판적인(페미니스트적, 인종차별 반대주의자적, 생태학적 등) 분석을 가하는 이들에게 호소력을 가지는 개념이다.

피츠버그대학의 긴스버그 교수는 폭력의 단계를 거시적(그룹간의) 단계

와 미시적(대인간의) 단계로 구별지우고 있다. 평화달성을 위해 제거되어야 할 폭력형태들 중에서 예를 든다면 거시적 단계의 물리적 폭력은 국제적, 지역간, 집단간 충돌, 대량학살 등이고 구조적 폭력은 문맹과 가난, 환경의 질적 저하를 영속시키는 정부차원, 혹은 다른 기구의 정책과 실행 등이다. 미시적 단계의 물리적 폭력은 여성, 아동, 노인에 대한 가정폭력, 학교와 직장에서의 신체적 처벌, 강간, 지역사회에서의 무기소지 폭행 등이고 구조적 폭력은 타인의 존엄을 부정하는 대인간의 비언어적 행동, 타인의 정체성이나 존엄, 생존의 기회를 절하하거나 부정하는 목소리 및 침묵 등이다.¹³⁾

여성운동의 측면에서 평화에 대한 접근을 할 때 물리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 거시적인 단계와 미시적 단계를 굳이 분리하여 선택해야 할 필요는 없다. 폭력이 다양한 형태로 혼재되어 있기도 하고 연관되어 있다. 다만 일상의 미시적 폭력을 간과하고 거시적 담론에만 그 방향성을 둘 때 대중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그간 평화운동은 눈앞의 이익을 당장 개인에게 가시적으로 보여 줄 수 없는 특성과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이제 평화운동은 자신의 내면적 성찰과 일상에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운동, 인간관계를 풀어나가는 도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평화적인 불편함에 너무 익숙해져 둔감해진 우리의 감수성을 회복하는 일이 우선 중요하다.

모든 것을 평화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것을 일상에 적용하는 노력이 평화운동의 과정이자 본질이며 시작이며 끝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내재된 일상화된 반평화를 역사적 통찰력과 인간에 대한 연민의 눈으로 일관성 있게 성찰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전통과 규범, 습관, 언어, 생활양식 등에서 반평화적인 의식과 행위를 발굴하여 평화적 전이를 할 수 있도록 섬세하고 치밀한 문제의식이 요구된다. 즉 평

13) Mark B. Ginsburg, "Educating for Peace and Democracy: Multiple Meanings and the Possibilities for Unity?", 2001 한국교육개발원 주최 국제세미나: 통일 교육

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평화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자세와 능력이 갖춰져야 한다.

평화를 일상화, 생활화하기 위한 가치와 태도의 형성, 기술훈련 등이 다양하게 요청된다. 한국적 상황에서 ‘관용’ 철학을 발전시키고, 서로를 배려하고 돌보는 심성훈련, 갈등해결의 능력을 신장시키는 일, 유엔 등 국제시민사회의 평화에 대한 보편적 이해와 행동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의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평화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평화교육의 전문화, 즉 개인적 차원에서 구조적인 차원까지, 다양한 계층과 연령에 맞는 교육내용,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불교의 사회참여운동을 세계적으로 이끌고 있는 순락 시바락사는 평화에는 외부적 평화와 내부적 평화라는 상호연관하는 두 단계가 있으며, 외부적 평화는 싸움, 폭력, 전쟁을 없애는 것이고 내부적 평화는 심적, 정신적인 평화인데 이 내부적 평화는 공포, 분노, 정신적 혼란으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한다.¹⁴⁾

전쟁과 분단, 파시즘의 한국 현대사에서 볼 때 사회구조적 평화와 개인적 평화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구조적 반평화가 개개인에게 심어 놓은 정신적 혼란, 분노, 공포 등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이 정신적 혼란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기정체성을 찾지 못한다면 사회구조적 평화를 실현하기는 어렵다. 내가 평화로운 심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지 못하여, 평화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평화를 향한 통일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통일운동, 평화운동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반도의 평화적 사회통합, 사람과 사람의 통일을 향해 이제 달려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 볼 때이다.

14) 순락 시바락사 저, 변희욱 역, “평화의 씨앗”, 정토출판, 91쪽.

남북여성교류의 길을 넓히기 위하여

-남북여성교류 참가 경험을 중심으로-

이김현숙(민화협여성위원회위원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오늘의 발제는 남북여성교류에 참가했던 경험 나누기다. 참가경험을 보고 하고 그것으로부터 추출한 방안을 토론허리로 정리해보는 작업이다. 필자는 1991년, 서울에서 열린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에 사회자로 참가하였으며 2001 민족공동행사를 위한 남북협상팀에 추진본부 공동여성위원장으로 두차례 참가했다. 그리고 8.15 여성통일토론회에 남측단장으로 참가한 경험이 전부다. 따라서 필자의 경험 보고나 제안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북한사회를 이해하고 남북여성교류 방안을 논의하는 일이 마치 조각그림 맞추기와 같은 거라면 오늘 논의는 그림 맞추기의 한 조각을 맞추는 작업에 불과할 것이다. 이 작업은 평양방문보고에 이어 남북여성교류의 발자취를 개관하고 이에 기초한 남북여성교류의 과제를 모색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1. 평양방문과 여성통일토론회 보고

2001년 8월 15, 서울에서는 311명의 방북단(기자단까지 합하면 350여명)이 아시아나 전세기 두 대에 나누어 타고 평양으로 날아갔다. 평양에서 열리는 2001민족통일공동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방북단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7대 종단(카톨릭, 개신교, 불교, 등) 그리고 통일연대가 하나로 꾸린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2001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추진본부)”의 대표들이었다. 분단이후 최대규모의 민간인 방북단이었다. 311명 중 여성대표는 57명, 그리고 여성부문 대표는 22명에 불과했다. 여

성부문 대표단은 이효재교수를 고문으로 추진본부 여성위원회(민화협 여성위원회와 통일연대 여성위원회) 회원단체 대표들로 구성되었다. 아시아나 비행기 두 대가 직항로를 통해 순간 비행장에 내린 것은 오후 1시경, 마침내 반세기 넘게 금지되었던 땅, 평양에 입성했다. 비행장에는 수많은 환영객이 조화를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비행기의 짐들을 기다리는 동안 사진 찍기에 바빴다. 보통 방문 때는 금지된 일이었다. 8월의 뜨거운 태양과 아스팔트가 뿜어내는 열기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우리는 비지땀을 흘렸다. 그런데 북측 환영객은 출발이 늦어진 서울 비행기를 기다리느라 이 엄청난 열기 속에서 이미 3-4시간 우리를 기다린 끝이라 했다. 환영객 대부분은 한복차림의 여성들이었다. 남측의 많은 사람들은 미안해했다. 어떤 이들은 이 더위에 이 많은 사람들을 고생시키며 이렇게 까지 해야되느냐며 안쓰러워 했다. 비행기 두 대에서 짐이 내려오자 간단한 환영행사를 마치고 곧바로 버스에 올랐다. 워낙 늦은 탓이었는지는 모르나 우리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비행장안에서 곧바로 준비된 버스로 안내되었다. 사람도, 짐들도 검사를 거치지 않고 평양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었다. 사람과 짐이 통관절차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지구 어디에도 없지 않은가? 더구나 50년간 적대하던 사람들의 대규모 방문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남북간에 신뢰가 쌓였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엄청난 변화가 아닌가!

남측사람들을 실은 12대의 버스가 열을 지어 평양 고려호텔로 향했다. 거리의 사람들은 남측 손님들을 향해 일제히 손을 흔들었다. 고려호텔에 도착하니 3시 경, 위 아래층에 늘어선 환영객의 환영 인사 또한 열렬했다. 호텔로비에 짐을 늘어놓고 식당을 찾아가 정성껏 준비된 점심을 먹느라, 또한 방배정을 받아 방을 찾아가느라, 350여명을 맞은 호텔 로비는 혼잡스러웠다. 이로부터 6박 7일간의 평양일정이 시작되었다.

다양하게 진행된 평양민족공동 행사에서 남북 여성만남은 16일,토론회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평양 시내 참관여행을 함께 하고 간담회를 한차례 가지고 실무회의를 하는 것으로 채워졌다. 북측에서는 조선민주여성동맹

(최창숙 부위원장, 여맹), 조선여성협회(서옥선 상무위원), 민화협 여성부(박영희 참가) 대표 등이 내내 참석했다.

토론회는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다. 북측에서는 최창숙 여맹부위원장, 남측에서는 필자가 기조발제에 나섰다. 그리고 남북에서 각각 2인의 대표가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회에는 남,북측 대표와 해외여성대표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발표자들은 하나같이 6.15 공동선언의 정당성을 표명하고, 공동선언 실천에 남북여성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에 대한 문제인식이 동일함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토론회는 남, 북, 해외여성들의 단합, 일본교과서문제등 민족 자주권과 한반도 평화 수호에 공동대응하자는 결의문 채택으로 마감되었다. 남측기조발제에서 제기된 독자적인 남북여성대회 개최 제안은 이후 대표자 간담회와 남북 단장 만남에서 계속 논의되었다. 일주간의 여행을 마치고 출발하는 날, 새벽 1시, 최창숙대표와 필자는 다시 협상태이블에 앉았고(실무진 배석) 가벼운 논쟁을 거쳐 마침내 <2002년 남북여성통일대회>를 개최한다는 데 합의하게 되었다.

남북여성들은 이미 1991년부터 1993년까지 4차례 걸쳐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를 가진 경험 때문에 8년만에 열린 이번 토론회와 합의를 누구보다도 반겼다. 특히 6.15공동선언 이후 처음 열리는 토론회라는 점에서 남북 여성들은 큰 의미를 부여했다. 6.15 공동선언 이후 민간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노동자, 농민 등은 이미 대규모 분야별 대회를 가진 바 있지만 여성대회만은 열리지 못한 채,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 크게 다가왔다. 북측은 조선민주여성동맹(회장 박순희)을 중심으로 조선여성협회와 민화협 여성부가 하나가 되어 움직이고 있었고 공동선언 실천의지는 매우 확고해 보였다. 이번 접촉에서 북측은 특히 남측의 다양한 대북 창구를 하나로 단일화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그동안 남측에서는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여성단체연합, 우리민족서로돕기 여성위원회, 여성지도자연합 등이 북측과 개별 접촉을 가져왔는데 북측은

각 부문을 아울러 하나의 창구로 만나자는 것을 제안했다.

평양 시내 참관여행은 남북여성들이 사사롭게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여성들은 11호차 전용 버스를 함께 타고 평양 시내와 백두산, 묘향산 참관여행을 함께 했다. 1주일간의 여행은 이해와 우정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상호 체제의 차이와 사고방식의 차이, 행동방식의 차이도 가감없이 서로에게 노출되었다. 북측 사람들은 남한의 다양한 목소리를 부담스러워 했고 남측 사람들은 북측사람들의 한가지 목소리에 질려하는 분위기를 내보이기도 했다. 의사소통상의 난관도 나타났다. 달라진 언어 때문이기도 했지만 체제차이에서 오는 의사소통의 문제도 컸다. 일사분란하게 단일 조직 속에서 위계적으로 작동되는 북한 사회와 다양성 속에서 수평적 사회로 이동하는 남한사회와의 차이는 같은 언어사용에도 불구하고 의사전달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평양의 거리모습과 사람들의 모습, 건물마다 나붙은 수많은 구호들은 북한의 정치상황, 경제상황을 현실 그대로 보여주었다. 평양 사람들의 모습은 예상외로 자유로와 보였고 사람들은 껍따뜻했다. 따뜻해 보이는 사람들도 정치적 입장을 설명할 때는 단호하고 확고했다.

8.15 공동행사를 통해 평양은 남한의 대규모 민간대표들에게 과감하게 문을 열었다. 남측도 평양체류에서 그들의 다양한 이념지평을 유감없이 들어냈다. 행사장소를 두고 남북간, 남남간 갈등이 나타나기도 하고 혼란도 있는 그대로 노출되었다. 의견 조율이 안돼, 간혹 얼굴을 붉히기도 했지만 남북은 끝내 웃음을 잃지 않았다. 아쉬움과 따뜻한 포용으로 헤어지며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우린 다르지만 한 동포임을 숨길 수 없었다. 그러나 6박 7일간의 여행이 긴 여행처럼 느껴졌다. 서울행 비행기도 반가웠다. 그것은 남북이 50여년간 얼마나 다른 사회, 다른 인간을 만들어 놓았는가를 말해주는 것이었다. 북측 사회에 대한 수많은 생각이 머리를 어지럽혔다. 그것도 잠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남측사회에 붙어닥친 이념적 폭풍을 어떻게 감내할 지를 다시 걱정해야 했다.

2. 민간여성들의 남북교류

평양 8.15민족공동행사는 이전에 민간단체들이 쌓아온 교류의 역사와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여성들은 1990년대 초부터 선구적으로 남북 여성교류의 물꼬를 트고 남북 사이에 적지않은 신뢰와 우정을 닦아온 터였다. 이번 민족공동행사에서 여성들이 만들어낸 통일토론회는 여성들의 지속적인 교류노력의 연장선상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1) 최초의 남북여성교류 :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최초의 민간 남북여성교류는 1991년-1993년 사이에 4차에 걸쳐 열린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였다. 이 토론회는 남과 북 그리고 일본, 3국의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일본식민지배와 전후 처리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통일문제, 가부장제문제, 평화문제들 등을 토론했고 공동의제를 찾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동경(1991), 서울(1991), 평양(1992), 동경(1993) 순으로 돌아가며 순차적으로 개최되는 국제회의 성격으로 열렸다. 참가자들도 점차 늘어나 제2차 서울 토론회에는 북측에서 려연구 단장을 비롯하여 15명의 여성대표단이 판문점을 통해 서울에 왔으며 제3차 평양토론회에는 남측에서 이우정 단장을 비롯, 30여명의 여성대표단이 역시 판문점을 통해 평양에 들어갔다. 토론회 논의 수준도 점차 성숙되어 평양행사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남,북,일 여성들의 공동의제로 확정하고 통일되는 날까지 토론회를 정례화할 것을 합의하는(비록 오래가지는 못했지만) 성과를 남겼다.

특히 평양행사 때는 김일성 주석이 오찬을 베풀 만큼 북측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 남,북,일 여성의 공동의제가 확정됨에 따라 이후 일본군위안부(북에서는 종군위안부) 문제를 위한 남,북,일 여성 모임이 별도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토론회 정례화 합의에 따라 이후 남,북,일에는 각각 '아세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남측실행위원회,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북측 실행위원회, 그리고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일본측 실행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보다 탄탄한 조직을 토대로 제 4차 토론회가 동경에서 열리고 제5차 서울 토론회(1993.10.11. 민족의 화해와 여성)도 계획되었다. 그러나 제5차 서울 토론회 개최를 앞두고 남북관계의 경색 등 정치변동이 이어지면서 토론회는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후 공동의제로 설정한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위한 모임이 지속되고 각각의 실행위원회는 명칭을 바꾸어 활동을 지속하게 된다.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남측실행위원회는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평화여성회)>로, 북측실행위원회는 <아세아여성과 연대하는 조선여성협회>로, 일본측실행위원회는 <조선여성과 연대하는 일본여성회>로 각각 명칭을 바꾸었다.

2)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여성모임

안타깝게도 위의 토론회는 중단되고 평양토론회에서 남북이 공동의제로 설정한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은 2000년까지 4차례 지속되었다. 그 첫모임은 1993년 10월, 제2차 '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에 북측대표가 참석함으로 성사되었다. 두 번째 모임은 곧바로 1993년 11월에 열렸다. 북측의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 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종태위)'가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에 관한 평양여성토론회'를 개최하고 남측 대표(이효재, 윤정옥)를 초청함으로써 이뤄졌다. 세 번째 모임은 1998년, 북측 종태위에서 또다시 '종군위안부문제와 여성의 존엄'을 주제로 한 베이징 3자회담을 요청, 그해 10월에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베이징 3자회담'이 성사되었다. 여기에는 남측에서 정대협 대표와 평화여성회 대표가 참석했다. 이 모임에서 남,북,일 여성들은 일본정부에 보내는 항의문을 공동제택하고 유엔인권위원회에 보내는 편지를 함께 썼다. 또한 2000년 국제전범여성법정에 함께 참가할 것과 '위안부문제 조기해결을 위한 연대'활동을 벌일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다. 네 번째 모임은 2000년 12월, 동경에서 열린 국제전범여성법정에서의 남북여성모임이었다. 이 모임을 준비하는 과

정에서 남북여성들은 여러차례 만나 의견을 나누고 공동대책을 세움으로써 국제전범재판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

3) 북한 임신모와 어린이를 위한 인도적 지원활동

남북여성들의 교류는 인도적 지원활동의 형태로도 이어졌다. 1995년 자연재해와 함께 시작된 북한의 식량난은 어린이와 임신모 등 사회적 약자들을 최대 피해자로 만들었다. 세계 곳곳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 이뤄지고 있었지만 아직 남북한의 정치적 경색이 풀리지 않던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남한의 인도적 지원활동은 금지된 상태였다. 이에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남측실행위원회는 1997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로 재 발족하면서 창립과 함께 대대적인 북한돕기 캠페인에 들어갔다. 평화여성회는 '북한 임신모와 어린이를 위한 '밥나누기, 사랑나누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 이를 점차 여성단체연합(여연)과 기독교교회협의 여성위원회(KNCC 여성위) 그리고 일반 여성대중을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해 8월 분유 26톤(1억5천만원 상당)을 평화여성회, 여연, KNCC 여성위 이름으로 북측의 조선여성협회와 조선민주여성동맹 앞으로 보냈다. 여성 최초의 북한돕기 캠페인이었다. 이후 북측의 조선여성협회는 일본여성회를 통해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다.

1999년 이후 여성단체들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활동이 다시 이어졌다. 교회여성연합회, 원불교여성회, YWCA 새마을 부녀회, 우리민족서로돕기 여성위원회, 여성지도자연합 등에서 분유, 옷감, 옥수수, 내복, 구두, 식용유, 미역 등의 대규모 지원활동에 나섰으며 현재도 지원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평화여성회와 여성단체연합도 2001년 겨울 내복을 다시 보낼 예정이다.

4) 남북 여성공동행사를 위한 준비 접촉들

2000년대로 다가서면서 인도적 지원과 함께 남측여성들의 평양방문이

나타났다. 우리민족서로돕기여성위원회(상임위원 최영희)는 1999년 9월 여성대표단(단장 이길녀) 4명이 옥수수 1천톤을 가지고 평양을 방문, 북한의 조선여성협회와 접촉을 가지고 <남북 여성한마당>을 공동개최하기로 합의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그것은 이행되지 않았고 또다시 2000년 11월, 남북여성교류를 위한 실무단 6명이 평양을 방문하여 2001년 6월 15일을 전후하여 남북여성 연찬회를 평양에서 개최할 것으로 합의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이 합의는 2001년 6.15 금강산 대토론회와 8.15 민족공동행사가 열림으로써 별도의 모임은 열리지 않고 말았다.

여성지도자연합(회장 김운덕)도 두차례 평양을 방문했다. 2000년 12월에는 지도자 6명이 평양을 방문하고, 북한 주민과의 간담회를 가지고 돌아왔다. 또다시 2001년 2월에 10명의 지도자가 평양을 방문하여 옷감을 지원하고 북측 여성지도자들(6명)과 '남북여성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그 결과 남북여성간에 '남북여성 민족축제 개최' 합의를 교환하고 이후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가졌으나 합의내용은 이행되지 않았다.

2001년에는 북측이 노동당창당기념일에 남측 NGO 단체대표들을 초청, 여성단체연합대표가 참석함으로써 북측 여성들과의 접촉을 가지게 된다. 이때 3.8여성대회의 남북공동개최가 논의되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5) 6.15 금강산 대토론회 여성부문 만남

이상에서 보듯이 남북여성들의 교류를 재개하기 위한 여성단체들의 노력이 꾸준히 지속되었다. 그러나 수차례의 남북여성접촉에도 불구하고 남북여성들의 교류는 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 답답한 국면에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은 돌파구를 제공했다. 6.15공동선언 1주년이 돌아오면서 남측의 민간단체들은 '6.15 공동선언을 위한 2001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추진본부)'를 결성,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와 민족공동행사를 공동으로 기획하였다. 그리고 그 첫 사업으로 금강산 통일대토론회를 마련, 남북한 민간대표 800여명이 금강산에서 3박4일에 걸쳐 토론회와 부문별 간담회와 산행 등을 함께 하며 남북여성들이 자유로운 만남을 가졌다. 이때 여성대

표단으로는 남쪽에서 400여명 중 83명이 참석했다. 소위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다양한 여성단체 대표들이 감시나 간섭없이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을 함께 가졌다. 1년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6) 2001민족공동행사(평양): 남북여성통일토론회

금강산 통일 토론회에 이어 8.15에는 민간대표 300여명이 평양을 방문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보고한 대로다.

3. 남북여성교류의 길 열기를 위하여

통일을 우리의 소원으로 노래하는 남북여성들은 다같이 남북여성교류에 목말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소망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의 여성교류는 자유롭지도, 활발하지도 않다. '남북여성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이라는 오늘의 주제는 남북여성교류 부진에 대한 여성들의 답답함과 교류촉진을 기대하는 간절한 소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면 남북여성교류는 왜 이렇게 부진한 것인가?

1) 남북여성교류의 걸림돌

우선은 민간교류라 하더라도 남북 사이의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6.15 정상회담과 공동선언으로 남북은 적대관계에서 화해와 협력의 단계로 이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남북 사이에는 상호불신의 벽이 놓여 있다. 지난 3월 이후 수개월간 중단되었던 당국자간 대화가 그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다행히 대화가 재개되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50년간 적대관계에 있던 남북관계에서 남북 정부간 대화지속과 비적대적 관계조성, 그리고 화해.협력의 제도화는 모든 민간교류의 필수 조건이다. 지난 6.15와 8.15에 민간단체들의 남북민족공동행사가 남북대화중단기간에 이뤄지긴 했지만 그것은 6.15공동선언이 있었기에 가

능한 일이었다. 이런 점에서 민간(여성)교류를 촉진시키려면 민간(여성)이 어떤 정권이든 남북 정부간 화해정책을 채택, 유지할 것을 요구, 지지하고 그 지속적 이행을 압박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또한 남북 정부가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독립적인 민간교류 지속 장치를 제도화하도록 요구하는 일도 필요하다.

남북한 사회에 만연한 냉전의식도 교류를 부진하게 만드는 주요 이유다. 우리는 2001년에 민간이 각고 끝에 이룩해낸 평양 8.15민족공동행사 뒤에 남한을 강타한 냉전기류에서 냉전의식의 강고함을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이룩한 2001년 6.15행사와 8.15 평양방문은 분단역사를 가르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1)이념지평이 서로 다른 민화협과 7대종단과 통일연대가 하나의 단위로 묶여 남북민간교류를 추진한 점, (2) 6.15 금강산 대토론회를 통해 대규모 남북 민간사이의 자유로운 접촉과 교류를 성사시킨 점, (3) 300여명의 대규모 민간단체의 평양방문을 성사시키고 남북 공동으로 8.15민족행사를 치른 점, 등 만으로도 이번 6.15, 8.15행사는 남북 민간교류사에 새 장을 연 사건이었다. 이것만으로도 역사적 의미는 충분했다. 그런데 부문별 남북대화를 통해 다양한 민간교류의 청사진이 세워졌다. 여성, 청년, 작가회, 종교, 농촌, 노동, 문화 등 각 부문간에 남북대화가 이뤄지고 앞으로의 교류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약속되었다. 일주일간의 접촉을 통해 각 부문들이 동시에, 몇 년이 걸릴지 모르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지 모르는 남북 민간 교류의 문을 활짝 연 셈이었다. 그동안 각 부문들이 민간교류를 트기 위해 투자한 에너지와 인내와 경비를 생각하면 이번에 이룬 성과들의 값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이념지평이 다양하고 연령층이 다양한 남쪽의 민간대표 300여명이 분단역사이래 최초로 50여년 간 원수의 땅으로 돌아왔던 평양에 함께 날아갔다. 그리고 함께 토론하고 여행하고 함께 먹는 동안, 남측사람들끼리도 서로가 얼마나 다른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남북간 못지 않게 남남간 갈등 또한 얼마나 골이 깊은가를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가

치로운 시도였다. 일찍이 남한에서도 해보지 못한 경험이 아닌가. 성취의 목록은 또 있다. 꿈에도 그리던 우리의 땅을 밟은 감격은 또 어떤가? 본단은 늘 우리를 깊은 상실감에 빠뜨리는 원천이었다. 남한을 고립감에 빠뜨리는 원천이기도 했다. 금지되고 위협적이라 믿어온 공간과 이웃해 사는 자들의 불안 또한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런데 평양방문은 이런 상실감, 고립감, 불안감, 터부를 깨뜨리는 데없이 좋은 기회였다. 또 있다. 북한의 현실(부분적이라고는 하나)을 보고 남북이 얼마나 이질화된 사회인가를 확인하는 경험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수확이었다. 이런 생생한 경험은 이후 참가자들의 통일생각을 훨씬 현실적인 세계로 인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값진 것이었다. 이렇게 민간단체들은 2001 민족공동행사를 통해 남북 교류사에 엄청난 진전을 만들어 냈다.

그런데 평양방문단의 어느 일부가 잠시 대열에서 나와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금그어 놓았던 곳을 잠시 들렀다. 냉전적 시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방명록 사건도 나타났다. 이것은 평양에 함께 체류했던 이들의 경험과는 사뭇 다르게, 남한 언론에 확대 보도되기 시작했다. 언론이 성과중심, 화해중심으로 보도했으면 묻혀버렸을 이 사건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남한 사회는 삽시간에 이념논쟁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이것은 마침내 통일부장관 사퇴라는 정치변동까지 낳고 말았으며 민간단체가 이룩한 남북교류의 모든 성과들을 하루 아침에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다.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우리 사회의 냉전의식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냉전의식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도 존재하고 있다. 교류과정에서 나타난 실수와 시행착오를 확대 해석하여, 민간이 이룩한 큰 성과들을 무화시키는 냉전기류가 사라지지 않는 한, 민간교류는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렵다.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공정한 판단과 공론을 거치고, 성과는 성과대로 거두는 합리주의가 뿌리내릴 때, 낡은 주의 주장보다는 민족의 이익을 추구하는 실리주의가 뿌리 내릴

때(경제세계화시대를 살아남기 위해서도),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감보다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때 비로소 민간교류는 그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의 자성적 근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남북한 정부와 관료사회의 여성분야 경시태도와 의식도 여성교류를 부진하게 하는 한 요소다. 가부장제 사회의 오랜 성별분업론에 따라 정치, 통일, 외교, 안보분야는 전형적인 남성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따라서 이 분야를 움직이는 지도자와 관료는 거의 남성들이다. 이런 현상은 특별히 이들이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이들이 아닌 이상 민간교류 촉진 정책에서 여성분야를 경시하거나 부차적으로 간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라는 여성들의 요구없이 변화는 완만할 수밖에 없다. 북한사회의 경우 여성의 정치참여가 남쪽에 비해 20.1%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자랑하지만 위계적으로 짜여진 사회주의 사회의 속성상 타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들의 자율권은 대단히 제약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남북 당국자간 대화에 여성의체를 요구하고 여성교류촉진 정책을 요구하는 일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응해가야 할 과제다.

북미관계도 민간교류 부진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주요한 변수다. 특히 미국은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협상보다는 다시 대결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북미간 상호불신과 대화단절은 정상회담 이후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과정을 지연시키고 있다. 북한은 8.15공동행사 직후 평양에서 합의한 민간 각 분야의 교류 계획 실천을 위한 실무회담을 요청해 왔었으나 현재는 거의 모두 중단되어 있는 상태다.

2) 남북여성교류 확대 방안

남북여성교류를 확대하는 길은 일차적으로 앞에서 제기한 걸림돌을 제거할 때 활짝 열릴 수 있다. 그러나 미시적 수준에서의 조건들을 마련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 교류는 상대가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상대없이

남북여성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만큼 논의가 제약적이라는 말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허사다. 앞에서 검토한 남북여성교류의 역사가 그것을 말해준다. 이뿐이 아니다. 상대가 응하더라도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우리와 다른 정치 제도 속에 사는 여성들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교류계획이 세워져도 자신들의 정치상황에 따라 변경해 버리면 이것을 전인해낼 방법이 없다. 남북간에 게임의 룰이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교류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런 제약 속에서 우리는 궁색해 보이지만 매우 본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교류는 자주 만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만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회심리학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양자가 접촉할 기회를 늘리는 것이 항상 상호 이해와 호감을 증진시키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접근방법을 성찰하는 일은 향후 교류확대의 기본 토대라 할 수 있다.

우선 교류가 상호적이라는 점에서부터 출발해 보자. 두 당사자는 어떤 경우, 만남에 대한 욕망을 키우게 될 것인가? 그것은 각 당사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좌우될 것이지만 양자에게 장,단기적이익(또는 보상)이나 호감 또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가장 신속하게 교류가 진행될 것이다. 반대로 손해나 불쾌함 또는 무가치함이 예상될 경우엔 지속되던 교류도 중단될 것이다. 따라서 교류의 촉진이나 확대는 양자의 이익이나, 호감이나, 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할 때 이뤄질 것이다. 남북여성 교류를 통해 남북여성들은 각각 어떤 이익을, 즐거움을,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가? 남북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 남북교류는 그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 계산법은 장,단기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고 유형, 무형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는 포괄적 방식으로, 또한 민족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관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민족적 이익에 대한 총체적 예견없이 '퍼주기'논란을 계속하는 한, 민간교류가 확대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둘째로 교류확대를 위해서는 양자사이에 신뢰 쌓기가 중요할 것이다. 민

을 수 없다고 의심하는 한, 교류는 확대되기 어렵다. 교류확대는 신뢰의 정도에 비례할 것이다. 50년 적대의 시간과 정치체제의 차이 그리고 남북의 체제경쟁은 끝없이 상대를 의심하는 관성을 우리 안에 만들어 놓았다. 어떤 모임에서, 6.15 금강산 대토론회 참가자들에게 다녀온 소감을 물은 일이 있다. 다양한 반응 끝에 한 참가자는 “금강산에서 만난 북한여성들의 말이나 태도를 절대로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 다 쇼다.”라는 말로 결론을 맺는 것을 본 일이 있다. 정부간 남북교류 초기에 남쪽을 다녀간, 한 북쪽 사람의 TV대담 내용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이런 만남은 의심을 견고하게 함으로써 이후 교류를 어렵게 만들어 갈 것이다. 이런 의심은 상대방의 사회체제와 그 한계 그리고 처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증폭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상대방 체제와 형편에 대한 지식 갖추기가 매우 중요하다. 잘 아는 만큼, 신뢰기반이 확장되고 그 만큼 교류는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남북이 타자에 대한 우월감을 벗어날 때 교류의 길은 확장될 것이다. 남이 경제적 우월감을, 북이 주체사상에 대한 우월감, 또는 각자의 체제우월감을 앞세워 상대를 대하는 한, 거기엔 끝없는 경쟁만이 존재하고 평등한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가기 어렵다. 남북한 여성교류는 서로가 경쟁 상대로써 교류하기 보다는 협동의 파트너로써 만날 때 지속될 수 있다.

넷째로 단일민족 전통은 우리 사회에 ‘다른 것’, ‘다양한 것’에 대한 관용의 정신을 크게 제약해왔다. ‘다르면’ 불편해하고 편을 가르고 대결하는 전근대적 정신구조가 존재하는 한, 다른 체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른 것, 다양한 것을 허용하고 협력적 동반자로 받아드리는 능력을 키울 때 교류는 확대될 수 있다. 북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형성된 사회주의적 인간과 남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형성된 자본주의적 인간이 만나는 교류에서 상호다름을 인정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지 않는 한 교류는 불가능할 것이다.

다섯째로 남북여성교류는 남북 여성의 공동 관심사와 운동과제를 발굴해 낼 때 지속, 확대될 수 있다. 남북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공동의제로 설정한 후 남북여성교류가 지속된 것을 남북여성 교류사에서 볼 수 있다. 8.15여성통일대회에서 남북여성들은 6.15공동선언 실천에 함께 나서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2002년에는 독자적인 남북여성통일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남한 여성들은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의제 및 과제발굴에 나서야 할 것이다. 8.15에 만난 북한여성들은 하나같이 6.15공동선언 실천을 매우 열렬하게 강조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일본의 전후처리문제 공동대책활동, 통일 이후 여성정책의 기본 방향 공동연구, 그리고 탁아문제, 결혼 풍습, 여가활동, 건강, 자녀교육 문제, 사회참여 등 여성들의 일상적 과제들에 대한 정보교환 등의 활동을 발굴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로 남북교류를 위해서는 당분간 남쪽 여성들의 교류 창구를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 추측건대 북측은 인력의 측면에서나 사회주의 체제의 작동기제 상, 남쪽 여성단체들의 개별적 교류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언급했듯이 지난 8.15 여성토론회에서 북측 여성들은 창구단일화를 반복해서 요구하곤 했다. 이를 위해서는 북쪽 여성단체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북쪽의 여성단체는 크게 말하면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 하나라 보아도 무방하다. 앞에 언급한 조선여성협의회도 여맹 산하의 대외업무 총괄부서라 할 수 있다. 그 외 민화협 안에 여성분과가 있지만 이들 세 조직은 한 단위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이런 현실에서 남쪽의 수많은 여성단체와 개별적 교류에 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남북여성교류 참가 경험 그리고 그에 기초한 몇가지 제안을 나누어 보았다. 이 작은 경험나누기가 여성교류의 과거경험을 성찰하는데 그리고 여성교류의 미래를 도모하는데 하나의 사색거리, 토론거리가 되길

바란다. 여성들의 남북교류는 여성주의적 관점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여성주의적 관점은 남북사회에 건고하게 내장되어 있는 가부장제와 군사주의에 대한 명백한 인식,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확고한 전망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여성들이 주도하는 남북교류는 민주적 원리를 두루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교류라는 특징을 지닌다. (genderpeace@yahoo.co.kr)

